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연구  
- 전래 동화와 창작 동화를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정선

#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연구

- 전래 동화와 창작 동화를 중심으로 -

강 진 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정 선

# 인 준 서

김정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1세기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적인 환경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에게 동화를 통한 문학 교육으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화는 현대 문명의 부정적 속성을 극복하고, 이데아를 인식하게 하는 통로이며, 잃어 가는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전인교육으로서 문학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학 교육에 있어 동화는 단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만 다루어지는 문학 교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7차 교육 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구성 체제의 다양화 속에 ‘보충·심화’ 영역이나 ‘생각 넓히기’, 대단원의 마지막 ‘읽터’ 등에 동화 작품이 풍부하게 수록 되어 있다.

이것은 최근에 높아진 아동 문학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화 문학과 이제 우리 사회와 문학의 당당한 일원으로 제 몫을 충분히 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학생들은 동화 작품을 감상하고 즐기면서 체험의 확대, 정서의 순화, 통찰력, 상상력, 심미성, 창조력, 도덕성의 함양 및 인격 형성을 해 나간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전래 동화(우화, 신화, 전설, 민담)와 창작 동화 역시 이러한 교육 목적을 달성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수용자의 입장이나 연구자의 입장, 모두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문학을 접함에 있어 ‘단절’과 ‘나눔’에 길들여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 때문에 교육 과정의 정신과 내용을 실현하기 위

한 자료이자 도구인 교과서에 수록 되어 있는 작품임에도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학 교육의 보편주의가 필요하다.

문학교육의 보편주의란 교육의 목적물로서 문학 작품에 대해 열린 시각으로 다양성과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대립적 신념이나 미학적 견해나 태도에 대하여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두루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한다. 그러므로 동화 역시 훌륭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문학이라는 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태도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문학 교육의 보편주의에서 동화 문학을 수용할 수 있길 바라며, 문학 교육의 목적인 언어 예술로서의 문학의 미적 가치를 알고, 삶의 태도와 방향에 도움을 줄 교훈을 얻으며, 사회와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경험의 원천으로 삼는 데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격 문학 교육을 하는 시기인 고등학생(17~19세)이 되기 전 과도기의 상태에 놓여 있는 중학생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기르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	3
3. 연구방법 .....	12
II. 동화의 특성과 동화 교육 .....	14
1. 전래 동화와 창작 동화 .....	14
2.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와 동화 교육 .....	19
1) 지적·정의적 발달 단계 .....	20
2) 동화의 교육적 기능 .....	24
III.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	28
1. 7차 국어 교육 과정과 문학 교육 .....	28
2.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분석 .....	32
IV. 동화의 문학 교육적 의의 .....	87
1. 미적 정서의 함양과 상상력 제고 .....	87
2. 다양한 인물상의 제시와 인간애 함양 .....	95
3. 물신화된 현실의 대응과 이상적 세계 구현 .....	107
V. 결론 .....	113

## 참 고 문 헌

## ABSTRACT

# I. 서론

## 1. 연구 목적

현대 사회는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여 인간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기계화, 자동화, 신속화, 규격화, 계량화 현상의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병폐를 낳았다. 인간을 사물화(事物化)하고, 인간의 정체성에도 의구심을 가지며, 끝내는 인간성을 상실하는 비극적 상황에 빠졌다.<sup>1)</sup>

이러한 산업사회를 거친 21세기는 모든 사물을 숫자화, 코드화하는 디지털 사회가 되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느낌에 의한 통찰이나 경험적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해 버린다.<sup>2)</sup> 그리고 변화를 절대적 가치로 내세우면서, 사람의 자기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강요하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내세웠다.

이러한 가치 상대주의는 쾌락주의와 접목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어려운 금융 생활이 필요 없다는 유혹을 받게 되고, 인간사회는 극도의 혼돈 속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디지털화된 기계적 메커니즘 속에서 좌절되고 있는 것이 21세기 현대 사회의 모습이다.

청소년들 역시 여러 가지 병폐적인 환경에 의해 나름대로의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는 나날이 향락적이고 폐쇄적이며 과격화하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의 이질성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학교는 단정한 복장과 두발, 순화된 언어 사용과 모범적인 행동을 가르치고 요구한

---

1) 진교훈,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윤리학의 과제」, 『21세기 인문학의 과제』,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8쪽

2) 위의 논문, 5쪽

다. 하지만, 사회는 개성적인 복장과 혁신적인 두발을 부추기고, 비어나 속어 같은 비정상적인 언어 사용과 도발적인 행동을 묵인하고 있다. 정서와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한 공격성만 극대화되고 있는 현상은 오늘날 더욱 심해지고 있다.<sup>3)</sup>

이런 삶의 상황에서 문학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인간의 삶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특이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문학을 통해 인간은 인간다운 삶에 대해 고뇌하고 세계에 대해 인과론적인 합리주의에 의해서가 아닌 인간 본연의 상상력에 의하여 투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삶의 총체적 모습을 이해하고 인간의 가치를 근원적으로 깨우칠 수 있게 하는 데 문학 교육은 결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점에서 문학은 인간을 옹호하는 가치물이다.

작가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고 생각하고 본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작품으로 형상화한다. 작가는 작가 정신으로 역사와 현실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인간성의 성취나 낙원의 지향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부조리를 고발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보람을 구체화하는 전력을 다하도록 요청 받고 있는 것이다.<sup>5)</sup>

그러므로 작가의 사상이 반영된 작중 인물의 행동이나 감정을 통한 문학 교육은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미적 인식력과 인간에 대한 통찰을 길러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문학 교육의 목표이다. 이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접하게 되는 동화가 올바른 정서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

3) 한철우, 『중학교 국어 3-2학기』, 「부록-21세기 사회와 독서」, 대한교과서, 2003, 240쪽

4) 구인환 외 4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6, 93쪽

5) 구인환, 「현대 사회의 위기 상황과 문학의 지평」, 『21세기 인문과학의 과제』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6, 30쪽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생각한다.

동화는 분열과 갈등의 세계를 화해와 조화를 통해 사물과 의식, 세계와 자아의 통합을 시도함으로써 전 인격적인 실체를 이루는 아동 특유의 심리 상태인 동심(童心)<sup>6)</sup>으로 바라본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그러므로 동화는 현대 문명의 부정적 속성을 극복하고, 이데아를 인식하게 하는 통로이며 잃어 가는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전인 교육 즉 문학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동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 중에서 동화가 학생들의 올바른 인간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학 교육적 의의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 이 작품들이 문학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적절한가를 살펴보고 중학교 문학 교육에 있어 동화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제7차 교육 과정은 문학 작품 향유의 질을 높이는 교육 활동을 강조하였다. 즉 문학 교수·학습이 문학 또는 개별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설과 기성(既成)의 문학적 해설을 단순 수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지 않고, 학습자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작품 해석과 비평 활동을 강조하여 문학을 통해 국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 시켜 주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

6) 동심(童心)은 어린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심리적 특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원형적 심상이다. 다만, 인간은 성장해 나가면서 특수한 환경과의 접촉에서 동심(童心)의 밀도가 희박해진다. 우리가 흔히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동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황정현, 『제23회 학술대회 자료집』, 「아동문학의 본질 이해」,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7쪽

이는 제 4차 교육 과정부터 ‘문학’ 영역을 설정하여 지도해 왔지만 작품의 깊이 있는 이해 능력 향상 보다 문학에 대한 또는 문학과 관련된 지식 전달이 주된 학습활동이었던 교육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이다.<sup>8)</sup>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편찬된 국어 교과서 역시 제 6차 교과서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 ①시대의 추이와 학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교과서의 판형과 외양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선하여, 교과서의 판형을 국판에서 4·6배판으로 키우고, 본문과 삽화를 단색에서 컬러화 하였다. ②하위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분책③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 강조 ④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서 ⑤학생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과서 ⑥ 결과가 아닌 과정을 지도하는 교과서 ⑦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수업을 지향하는 교과서 ⑧ 자기 점검을 통한 초인지 기능의 신장 ⑨지식, 기능, 태도를 지식으로 정리해 주는 교과서 ⑩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깨달음을 이끌어 주는 교과서로의 편찬 방향을 살펴 볼 수 있다.<sup>9)</sup> 2001년 이후 적용된 중학교의 7차 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sup>10)</sup> 역시 이러한 변화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국어 교과서에서 ‘문학’ 영역에 관한 연구를 볼 수 있다. 문학 교육 방법<sup>11)</sup>,문학교육의 내용 분석과 평가<sup>12)</sup>,문학 단원<sup>13)</sup>, 6·7차 문학 교육의 비

8)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대한교과서, 1997,14쪽

9) 고려대학교·한국 교원 대학교,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1-1학기』, 대한교과서, 2001, 34-36쪽

10) 2001년 이후 산문 문학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1) 김동윤, 「중학교 문학 교육 방법 연구-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성균관 대학교 교육대학원,2003

12) 박지은, 「6,7차 중등 국어과 교육 과정 문학 교육의 내용 분석과 평가」,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13) 손국진,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학 단원 연구」,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2003

교<sup>14)</sup>, 새로운 국어 교과서의 구성 체제에서 문학의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sup>15)</sup>의 연구가 있다.

둘째, 현대 문학 중 ‘소설’에 관한 연구로 현대 소설 단원의 적절성<sup>16)</sup>, 소설 분석<sup>17)18)</sup>, 소설 단원의 비판적 검토<sup>19)</sup>가 있다.

셋째, 고전 문학에 관한 연구로 제재의 선정 방안<sup>20)</sup>, 설화 교육 방법<sup>21)</sup>, 설화 창작 교육에 대한 것이<sup>22)</sup> 있다.

넷째, ‘소설 교육’에 관한 연구로 ‘빈자리 메우기’를 활용한 방법<sup>23)</sup>, 7차 교육 과정을 통한 소설 교육 방법론<sup>24)</sup>, 소설 교육의 현황 고찰<sup>25)</sup>, 소설 지도,<sup>26)</sup> 소집단 토의와 소설 교수법<sup>27)</sup>, 교과서 작품을 중심으로 한 소설 교

- 
- 14) 김정희, 「6·7차 교육 과정 중 중학교 문학 교육의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15) 허왕옥,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학’ 영역에 대한 단상(斷想)」, 『문학과 교육』 제16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 16) 신성임, 「중학교 국어 교과서-현대 소설 단원의 적절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17) 최성민,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 분석-제7차 교육 과정1학년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18) 홍준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 분석」,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19) 이신희,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의 비판적 검토-중학교 국어1-2 ‘6.문학과 독자’ 단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20) 서희순, 「중학교 고전 문학 제재 선정 방안에 관한 연구-제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21) 한준호, 「중학교 설화 교육 방법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22) 김정은, 「문학의 생활화를 위한 설화 창작 교육의 방법과 실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23) 김현주, 「‘빈자리 메우기’를 활용한 소설 교육 방법 연구-황순원의 소나기-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24) 황영채, 「7차 교육 과정을 통한 소설 교육 방법론」,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25) 배철식, 「7차 교육 과정에 다른 중학교 소설 교육의 현황 고찰」,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육<sup>28)</sup>, 학습자 중심 소설 교육<sup>29)</sup>, 소설 교육의 방향 및 실제<sup>30)</sup>, 소설 읽기와 소설 교육<sup>31)</sup>에 대한 것이 있다.

다섯째, 매체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매체를 이용한 소설 교수 방법<sup>32)</sup>, <신문 만들기>를 통한 소설 지도<sup>33)</sup>, 인터넷 매체 활용<sup>34)</sup>, 다매체 환경에서 소설 교육<sup>35)</sup>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여섯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과 문학에 관한 것으로 문학 영역의 단계별 지도<sup>36)</sup>, 소설 제재의 위계화<sup>37)</sup>, 초등학교와 중학교 문학 교육의 연계성<sup>38)</sup>에 관한 연구가 있다.

- 
- 26) 송정희, 「중학교 소설 지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27) 강현옥, 「소집단 토의와 소설 교수법 연구-“ 옥상의 민들레 꽃” (박완서)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28) 박병수, 「중학교 소설 교육 연구-교과서 작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교육대학원, 2002  
29) 김정희, 「학습자 중심 소설 교육 방법-체험 소설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30) 고미연, 「중학교 소설 교육의 방향 및 실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31) 김동환, 「소설 읽기와 소설 교육」, 『문학과 교육』 제16호, 문학교육학회, 2001  
32) 유지연, 「매체를 이용한 소설 교수 방법」,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33) 김영경, 「<신문 만들기>를 통한 소설 지도 방안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34) 구양희, 「국어과 교육에서의 인터넷 매체 활용 방안 연구-중학교 1학년 문학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 교육대학원, 2002  
35) 구소영, 「다매체 환경에서의 소설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36) 홍승민, 「중학교 문학 영역의 단계별 지도 연구-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37) 공현주, 「소설 제재의 위계화 연구-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38) 김영연, 「초등학교와 중학교 문학 교육의 연계성 연구-6~7학년 문학 교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일곱째, 7차 문학 교육 과정에서 강조한 ‘수용’과 ‘창작’ 중 ‘창작’에 관한 것으로 과정 중심 쓰기 전략<sup>39)</sup>, 창작을 통한 소설 교육<sup>40)</sup>, 중등 교육 과정에 의한 문학 창작 교육 방법<sup>41)</sup>의 연구가 있다.

여덟째, ‘학습 활동’에 관한 연구로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sup>42)</sup>, 국어 교과서 교육 내용과 학습활동의 체계<sup>43)</sup>, 소설 제재<sup>44)</sup>와 소설에서의 <학습활동> 분석<sup>45)</sup>이 있다.

아홉째,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 방법<sup>46)</sup>과 수준별 교육 과정의 실행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sup>47)</sup>에 관한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관한 것으로 수행 평가 방법<sup>48)</sup><sup>49)</sup>, 수행 평가를 통한

- 
- 39) 이진주, 「과정 중심 쓰기 전략을 활용한 소설 창작 수업방안 연구- 8학년 교과서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40) 오은주, 「창작을 통한 소설 교육 방법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41) 김경식, 「중등 교육 과정에 의한 문학 창작 교육 방법 연구 -소설 창작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42) 최현주, 「중학교 교과서 문학 영역 학습활동의 연구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을 바탕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43) 이남현, 「국어과 문학 영역 교육 내용과 학습활동 체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44) 신용옥, 「제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 제재 <학습활동> 분석」,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45) 김정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의 <학습활동> 분석」,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46) 조혜영, 「중학교 국어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 방법 연구 -중1 소설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47) 전은주, 「국어과 수준별 교육 과정의 실행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국어 교육』 11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 48) 방연주, 「중학교 소설 수행 평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49) 신지애, 「제 7차 교육과정 문학 영역에서의 수행 평가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sup>50)</sup>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중학교(7~9학년) 역시 짧은 기간임에도 국어를 비롯한 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문학 텍스트 선정이나 연구의 범위에서는 교과서 대단원과 소단원의 중심부에 있는 작품들로 한정 되어 연구 되고 있다.

새 교과서는 구성 체제의 다양화 속에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모아 놓은 자료 모음의 성격이 짙을 정도로 문학 체제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문학 작품이 곧 제재가 될 수는 없으나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목표를 구현할 수 있다. 즉 교재란 교수· 학습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이다<sup>51)</sup>.

문학교재는 국어과 교육 과정의 ‘문학’영역의 내용에 근거하여 교과서에 게재 되고, 문학 교육 과정의 구체화의 하나로써,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준거와 자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심화’영역이나 ‘생각 넓히기’를 비롯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 ‘선택’의 주변부에 수록된 작품들에 대해선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수용자의 입장이나 연구자의 입장 모두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문학을 접함에 있어 ‘단절’과 ‘나눔’에 길들여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문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주된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이다. 아동은 주로 초

---

50) 백진실, 「수행 평가를 통한 소설 교수· 학습 방법 개선 방안 연구

-현행 중학교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51) 최경희, 「문학 교재의 체계화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1집, 한국초등교육학회, 1995, 184쪽

등학교 학생을, 청소년<sup>52)</sup>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일컫는다.

초등학교의 문학 교육에서는 등장인물의 사고 수준이나 행동양식 등이 아동기 수준에 머무는 작품을 감상한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성인문학’으로부터 물려받는 텍스트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 된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적 위치에서 이도 저도 아닌 엉거주춤 한 상황에 놓여 있는 중학생의 경우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으로 되기까지는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고, 발달단계가 있다. 작품 역시 학습자의 삶과 관심사 그들의 생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중심으로 했을 때 문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장르의 위계화와 특성의 자리 매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설’이라는 문학의 장르 속에서도 이야기→동화→소년 소설→성장 소설→성인 소설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각각 문학의 한 영역으로서 독특한 의미와 구조를 가지고 사상과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나눔’과 ‘경계’ 속에서 문학을 접하고 교육 받아 왔다.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 서사 문학과 서정 문학, 민중 문학과 반공 문학, 고급 문학과

---

52) ‘청소년’을 자연 연령으로 보자면, 대개12-13세에서 22-22세 전후에 해당 한다. 연령으로 보자면 대학의 저학년층까지 포함 되겠으나. 사회적인 통념상‘청소년’이라고 할 때는 대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우리 학교 교육 현장의 학교 제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은 학제상으로 보면 중,고등학생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가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 정도부터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18~19세까지를 말한다.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 심리학』, 서원, 1997, 9쪽)

저급 문학,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 우리 문학과 외국 문학, 성인 문학과 아동 문학, 유아 문학, 초등 문학, 중학교 문학, 고등학교 문학 그리고 대학의 교양 문학등 유기적인 관계와 통합적 요소가 있음에도 단편적인 연구에 의한 결과물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단절과 나뉘는 시각 때문에 교육 과정의 정신과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자료이자 도구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임에도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변 영역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는 동화 문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할 작품들이 많다. 비단 주변 영역뿐만 아니라 대단원과 소단원에 속하여 소설로 갈래 지어진 작품 역시 아동 문학의 하위 갈래인 동화의 범주에서 보아야 할 작품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범주 설정에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 강하게 설정하면 분명하고 명확한 대신 그 테두리 때문에 인식과 확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느슨하게 설정하면 경계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대신 정체성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문학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동화’ 문학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서사 문학들과 동화를 구별 지어 주는 가장 큰 특징인 ‘동심’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마음’이라는 것은 성인 문학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며, 동화 문학의 고유한 특징이다. 장편 소설을 평가 하는 잣대로 단편 소설을 평가 하는 것이 오류이듯, 소설과 동화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과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동화는 아이들이나 읽는 이야기라는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조망되어 왔다. 이야기 문학의 모태로 신화, 전설, 민담 등을 소재로 한 인간

심리의 원형을 내용으로 한 동화는 성인 소설의 원형(Archtype)을 이루었다. 아무리 새롭게 쓰여진 리얼리즘 소설 속에도 자세히 보면 성경의 신화, 그리스 신화, 전래 동화나 우화 등이 희미하게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바꾸어 가는 문학 양식 속에서 변모 되어 왔다.

그러므로 동화에서 오는 감동은 비단 어린이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에 따라 단계를 뛰어넘을 수도, 그대로 멈출 수도 있는 것이다. 동화 문학은 유치하고 성인 문학은 고상하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동화문학의 본질이 전 인격적인 색채를 이루는 문학인 동시에 세계의 본질을 상징화 할 수 있는 문학이기 때문이다.<sup>53)</sup>

최근에는 동화를 포함한 아동 문학의 위상도 높아졌다. 아동 문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었다. 주변부에서, 낮은 발치에서 서성거리기만 하던 동화 문학도 이제는 우리 사회 문화와 문학의 당당한 일원으로 제 몫을 충분히 한다. 훌륭한 가치와 의의를 지닌 문학이란 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태도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문학교육의 보편주의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본다. 문학교육의 보편주의란 교육의 목적물으로써 문학 작품에 대해 열린 시각으로 다양성과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대립적 신념이나 미학적 견해나 태도에 대하여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그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두루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한다.

수용은 반드시 긍정이 아니며 모든 것은 엄밀한 미학적 기준에 의하여 검

---

53) 황정현, 앞의 논문, 2쪽

증 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문학 교육의 보편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또한 모든 장르를 두루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sup>54)</sup>

본고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문학 교육의 보편주의에서 동화 문학을 수용할 수 있길 바라며, 문학 교육의 목적인 언어 예술로서의 문학의 미적 가치를 알고, 삶의 태도와 방향에 도움을 줄 교훈을 얻으며, 사회와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경험의 원천으로 삼는 데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 3. 연구 방법

교과서의 높은 위상 속에서 동화는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독해 능력, 독서 태도, 언어 감각과 언어 능력, 창조적 삶을 학습하게 하기 위한 교재로 자리 매김 하였다. 이러한 동화 교재를 분석하는 데에는 동화 교재의 이론을 체계화 하는 방법, 동화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실태 조사 연구 방법,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 되어온 동화 작품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지도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 작품에 대한 감상 지도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화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국어과 교육 과정과 관련 지어 교재로 수록된 동화 작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동화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실제적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절차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의 종류와 특성, 발달 단계의 측면에서 본 동화의 교육적 가치

---

54) 최치훈, 『어린이를 위한 문학』, 비룡소, 2001, 46-47쪽

및 기능과 갈래별 교육적 특징을 고찰한다.

둘째,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작품들을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특징과 함께 수록 양상과 특성 그리고 수록 동화의 활용 가치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동화의 문학 교육적 의의를 규명 한다.

셋째, 위의 분석한 내용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동화 지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 한다.

분석 대상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 1, 2, 3학년 전 학기 문학 영역과 비문학 영역, 대단원 읽기 전 활동, 소단원 본문 속의 예시 작품을 비롯해 직접, 간접으로 언급된 동화 작품들을 모두 포함한다.<sup>55)</sup>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동화가 중학교에서도 문학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한 본격 문학 교육을 하는 시기인 고등학생(17~19세)이 되기 전 과도기의 상태에 놓여 있는 중학생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기르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

---

55) 설화(신화, 전설, 민담)와 우화는 전래 동화에 포함시켜 논하고, 대단원 마지막 부분의 [읽터]에 수록된 이야기의 경우 ‘동심’을 담고 있거나 동심을 향유하려는 성인들의 이야기는 창작 동화에 포함시켰다.

## II. 동화의 특성과 동화 교육

### 1. 전래 동화와 창작 동화

동화는 어린이와, 동심을 향유하려는 성인들을 위하여 창작되어 지는 문학 양식이다. 동화는 크게 신화, 전설, 우화, 민담의 형태나 내용을 아동들에게 알맞게 개작 또는 재구성을 하거나 현대적인 감각이나 기법으로 재현한 전래 동화와 작가의 순수한 창작에 의해 씌여진 창작 동화의 구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즉 시·소설·희곡 등과 같은 일반 문학의 양식이 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것과는 달리 동화는 그것을 향유하거나 수용하는 대상에 따라 생겨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의 삶이 어른들의 그것에 비해 순수한 것은 어린이의 심성이 인간의 심상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생활은 현실의 속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며 물활론적 사고(Animism)<sup>56)</sup>를 통해 질서와 조화를 지닌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삶은 바로 문학이 추구하는 포괄적 가치의 내용들과 밀착되어 있다.

옛 이야기에는 어린이가 많이 등장한다. 그것은 소위 동심이 원시인이거나 옛사람의 심리와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의 좋은 동화는 성인에게도 정서를 순화시키고 잃었던 동심을 회복시키며 심성을 고양시키는 구실을 한다. 이와 같이 아동<sup>57)</sup>문학의 하위 장르인 동화는 산문

56) 최경숙, 『아동 심리학』, 민음사, 1989, 147쪽

57) 아동문학의 대상인 '아동'의 범위 규정을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문학의 대상은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하는 5,6세~14,15세로

으로 된 표현 양식으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58)</sup>

첫째, 옛날이야기, 민담, 우화, 신화, 전설 속에서 추출된 전래 동화를 선조로 한 동화를 의미한다.

둘째, 전래동화와 같은 원시적인 형태를 개작하거나 재화<sup>59)</sup>한 서구적인 메르헨(Marchen)이나 페어리테일스(Fairytales)를 지칭하며, 메르헨이란, 독일어로 ‘작은 이야기’라는 뜻으로 짧은 이야기이며 반드시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의미한다.

셋째, 아동을 위하여 새로 창작한 창작동화나 전래동화를 계승하여 아동에 맞게 개작한 개작 동화를 의미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래 동화와 창작 동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1) 전래동화의 특성

옛날부터 전해 오는 동화를 말하는데 민간에 전승되어 오는 서사적 이야기라 할 수 있는 설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설화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

---

정하고 있다.(중학교 7~9학년까지 해당),반면에 서구에서 아동은 5,6세~18세(대학교 1학년)로 아동 문학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김경연, 「청소년의 이해」, 『문학과 교육』 제17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10쪽

58) 현실적인 아동 생활을 제재로 하여 사실적인 아동상을 묘사한 소년 소설이 있다. 현실을 리얼리티있게 묘사한 비교적 나이가 높은 아동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

59) 재화란 줄거리와 더불어 원형의 품위 및 풍미를 보존하면서 어린이의 말로 아름답게 재창조 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민중의 예술적 욕구가 구비동화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면서 구비동화를 소재로 한 예술적인 동화를 재창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화를 잘못하면 그것을 진짜 우리의 고유한 것으로 알게 되니, 큰 문제가 된다. 재화자는 전해오는 이야기의 내용과 그 주제를 깊이 이해하여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 속 담긴 느낌과 생각을 오늘날의 시대에 살리도록 해야 한다.

야기의 한 부분이 빠지거나 보태어지고, 또는 다른 이야기가 섞이기도 하여 도처에 비슷한 이야기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설화는 더 나아가 그 양식이나 또는 기능의 특징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신화, 전설, 민담 등이 그것이다.

이들 설화 중에서 동심을 그 바탕으로 깔고 있는 이야기가 전래동화이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아직도 정확한 개념 규정 없이 막연하게 혼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전래동화와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진 말은 민담이라는 말이다. 또한 신화나 전설, 민간설화 등 옛날이야기에서 어린이에게 유익하도록 재구성한 형태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래 동화는 설화의 한 부분으로 민담 중에서 동심을 바탕으로 하여 꾸며진 일정한 구조를 가진 구비 문학의 한 장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처음에는 설화인 민담을 어린이에게 들려주기 위해 재화한 것이 동화로 여겨지다가 점점 근대 창작 동화가 창작됨에 따라 ‘전래’와 ‘창작’을 구별하는 의식에서 용어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① 전래 동화는 시작과 끝에 일정한 형식의 말이 있다.

“옛날 옛적에...”, “옛날에도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과 같은 말로 시작되었다가, “아주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또는 “잘 살았다가 죽었대요.”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② 작중 인물의 활동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시켜 나간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일어나고 장소도 바뀐다. 그 형식은 연쇄적인 것과 누적적인 것이 있는데, 비슷한 사건이 모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연쇄적 형식은 반복되는 사건 속에 사건과 사건 사이에 서로 연결되는 인과 관계는 없다. 반면에 누적적 형식은 하나의 사건이 다음 사건의 원인이 되어 반복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더 큰 사건을 이루어져

간다.

③ 대립법과 반복법, 소거법, 의인법 등의 표현법이 많이 쓰인다

대립법은 선과 악의 대립, 힘과 지혜의 대립, 아름다움과 추함의 대립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복법은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도 반복을 통해 인상을 깊게 해나가는 기법을 말한다. 소거법은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열거한 다음, 그 가운데에서 불가능한 것이나 우연한 것은 모두 제거해 감으로써 마지막에 남은 것이 참이라고 믿게 해 가는 방법을 말한다.<sup>60)</sup>

---

60) 한국 전래동화는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유산으로 충, 효, 우애, 선의 등의 윤리와 생활의 멋과 삶의 지혜, 지배 계층이나 권위에 대한 항거, 웃음과 재치, 해학과 풍자 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전래동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정한 원칙들이 지켜지고 있다. 즉, 사건이 3회씩 반복 되거나, 시간과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감으로 주변에 다른 사건이나 인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인공의 등장과 함께 사건 속에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이야기는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진행 되어 간다. 이야기에는 선과 악이 항상 등장하고 서로 대립하여, 선이 이기는 과정을 그린다. 주인공은 착하거나 효성스럽고 의리가 있으며, 욕심이 없어서 하늘이나 신이나 도사, 도깨비의 은총을 받게 되어 있다. 비록 주인공은 가난하지만 선하고 현명하여 복을 받아 부자가 되거나, 색시를 얻는 등 결핍에서 시작하여 충족으로 끝난다.

② 마력의 사용은 서구의 동화에 비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③ 악에 대해 소극적이다. 악인에 대하여 관대하게 다루지, 결코 쳐서 무찌르거나 대항하지 않는다.

④ 현실은 비극적이고 염세적으로 그려져 있으나, 천상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묘사되어져 있다.

⑤ 옛날부터 구비 전승되어 온 것으로 언제,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

⑥ 정경묘사나 성격묘사가 없고, 줄거리 중심으로 사건은 단순하면서 명쾌하다.

(정 진, 「한국 전래 동화의 활용 및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어린이 문학 교육 연구회』, 어린이 문학 교육 학회, 2001, 112-114쪽)

## 2) 창작동화의 특성

창작동화는 문학으로 표현되어진 진실이 담긴 미학적인 장르이다. 전래동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와 구조를 긴밀하게 관련시켜 매우 환상적이고도 경이로운 이야기를 창작해 낸 것이다.

창작동화의 특성과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판타지를 문학적 특성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비체험, 비현실성 환상의 세계, 판타지의 우주를 무한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 일반 소설과 크게 다르다.

② 성장기 아동 독자란 점에서 최대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하며, 이들을 의식하는 문학이란 점에서 잔인하거나 부도덕하거나 추악한 인간상을 함부로 그릴 수 없다.

③ 자연과 사물의 인격화를 통한 생명적 삶의 가치관을 추구한다. 동화 문학은 무생물을 생물화 하고, 생명이 없는 것에 따듯한 생명을 불어넣어 자연과 사물을 인격화하거나 생명화 하여 서로의 우주론적 가치나 삶의 의미를 비교하고, 그것을 교류하고 교환한다.

④ 주제면에서 사랑과 모험, 권선징악을 보편적으로 수용한다. 인간과 인간, 자연과 자연, 자연과 인간의 사랑을 무엇보다 밀도 있게 의식한다.

⑤ 예술 형식에 있어서 작품의 길이가 짧고 문장은 간결하다.

⑥ 미래 지향적인 꿈의 문학이다. 어른들의 꿈이 대체로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인데 비해 어린이들의 꿈은 때 묻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해야 하는 속성을 가진다.

⑦ 소재면에서 우주성과 전원성이 강하다. 특히 동심세계는 우주나 자연이 무엇보다도 신기한 관심의 대상이며 친근감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재면에서 등장 빈도수가 많다.

⑧ 동심에 의한, 동심을 위한, 동심의 문학이다.

⑨ 의인법·우화적 수법을 다수 활용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래 동화와 창작 동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성이 있으며, 더불어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전래 동화는 인물이 유형화 되어 상호 대립형이 많고,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주인공은 의지적·초인적 특성을 지닌 전형적인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반면에 창작 동화의 인물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 특징을 지닌 개성적인 인물로 형상화 되고 있다.

둘째, 전래 동화는 그 소재를 신화·전설·민담에서 차용할 뿐 아니라 그 표현 방식도 설화성 형태로서의 서사에 의존하고 있다면, 창작 동화는 그 소재를 현실에서 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표현 방식도 다분히 묘사적인 지시와 대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문체 또한 세련된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주제에 있어서도 전래 동화가 권선징악, 충효, 보은 등 교훈적 성격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창작 동화는 그러한 전형성에서 벗어나 현실적 삶의 사실성과 순수 동심의 구현, 자연과의 교감 등 보다 인간적인 정서의 표출에 주력하고 있다.<sup>61)</sup>

## 2.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와 동화 교육

동화를 통한 경험의 확대는, 학생들에게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를

---

61) 한상수, 「한국 아동 문학의 교육적 기능 연구」, 단국대대학원 박사, 1988, 200~201쪽

갖게 해주며,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의 방향을 추구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어린 시절 듣게 되는 이야기 형식의 동화를 접하며 작품 속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sup>62)</sup>하는 과정에서 습관, 태도,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 근면성 등의 교육적 요소를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동화의 교육적 가치와 효용성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발달 단계의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1)지적·정의적 발달 단계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의 대상자인 학습자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특히 교육의 최적 시기를 논할 때 학습자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 즉 학습자의 발달 특성은 크게 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 학습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학습자의 특성은 지적 특성이다. 지적 특성에서 양적 측면의 연구와는 달리 인지 발달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성숙에 따른 인지 구조의 질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요인을 정의적 특성이라고

---

62) 최경희, 「동화의 교육적 응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3, 13-14쪽: 아동들의 심리적 성장의 발달 특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첫째, 아동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생리적·심리적·윤리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둘째, 인간 실존의 제반 문제는 그 유형 상태로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며, 그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여러 가지 사고를 지닌 성인이 된다.

셋째, 아동은 강한 동일시의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한다. 학교 교육에서 지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정의적 특성은 학생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정의적 특성이 인간의 행동의 심리적 기초를 이루며, 지적 특성과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고 있다.<sup>63)</sup>

발달이론에 나타난 초·중학교 시기 아동 및 청소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64)</sup>

피아제(Piaget)는 인지 발달의 측면에서 구체적 조작기(6,7-11세)에 해당되는 아동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도식의 동화 작용이 지속되고, 안정된 구조의 확립을 이루며, 보존개념, 가역성, 그 밖의 논리적 조작능력 획득하고, 탈중심화된 사고를 가지고,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을 하며, 사고와 문제해결은 구체적인 것에 제한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12세 이후)에 특징으로는 가설적인 것, 확률, 가능성 등에 관하여 생각하고,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의 능력이 발달하며, 조합적·연역적 사고가 가능하고,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여 추론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콜버그(Kohlberg)는 도덕적 판단의 측면에서 인습적 도덕수준(6-12세) 아동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 주기를 바라며,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과 규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점차 변화를 하며, 특별한 상황으로부터 행동의 규칙을 일반화한다고 하였다. 후인습적 도덕수준(12-20세)의 시기에는 도덕적 행동이 점차로 자율적으로 되어가고, 법의 절대성과 고정성을 벗어나 사회적 융통성을 인정하며, 법과 질서를 인식하고 도덕관의 갈등을 가지는 시기이기도 하며, 개인의 권리존중과 가치나 관점의 상대성

---

63) 이옥형·이종숙·임선빈, 『교육 심리학』, 2003, 95쪽

64) 이재분외 3, 「초·중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 수준 분석 연구(1)」, 한국교육개발원, 2000, 14-15쪽

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고 하였다.

헤비거스트(Havighurst)는 발달과업의 측면에서 아동기(6-12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술 습득하고, 성장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형성하며, 같은 연령의 친구와 사귀는 법을 배우고,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본 기술 습득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념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양심, 도덕, 가치 척도가 발달하고, 적절한 성 역할을 습득해 나가며. 사회집단과 제도에 대한 태도가 발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년기(12-20세)에는 남녀간 성 역할의 차이를 이해하고, 동성이나 이성 친구와 새로운 관계 가지며, 부모 또는 성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고,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직업 선택을 설계하고 준비하며, 시민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가 발달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고 실천하며, 결혼과 가정생활의 준비를 한다. 행동 지침으로서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추어 가치관을 형성시킨다고 하였다.

에릭슨(Erikson)는 심리·사회적 발달의 측면에서 근면성 대 열등감(5,6-11,12세)의 시기에 나타나는 아동의 특징으로 친구들과의 교제가 활발하고, 규칙에 따른 행동을 하며, 학업 수행 등을 배우며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시 보상, 원조 등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근면의 소중함을 배우며, 반대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지 못해 친구들과의 교제, 일반 활동, 학업 등에서 사회가 기대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자아정체감 대 혼미(12세 이후사춘기)의 시기에는 자기 존재에 대하여 새로운 의문과 탐색을 시작하고, 고민, 갈등, 방황 등 정체감에 혼란이 오며, 자아정체감(자기의 위치, 능력,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의식 또는 확신을 의미함)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프로이드(Freud)는 성·심리적 발달의 측면에서 잠복기(5,6-12세)에 나타나

는 아동의 특징으로 아동기의 과업 발달에 집중하고, 성욕을 억제하며, ‘사춘기의 질풍노도 전의 평은 시기’로 묘사된다. 애정의 주 대상이 가정외의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고, 특히 친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다고 하였다. 생식기(12세 이후)에는 이성에 대해 애착적 경향을 보이고, 성적 충동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신체적·생리적 능력 갖추게 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된 애정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

서술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시기에 아동은 신체적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지적으로는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본기술 습득은 물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학업에 열중하게 된다. 정서·사회적으로는 가정보다는 집 밖의 환경과 더 많이 교류함으로써 친구, 학교, 사회와의 관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능력과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친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알게 되며,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정서, 사회적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해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후기, 중학교시기에 이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은 더욱 왕성해지게 된다. 제 2차 성징의 출현, 보다 고차원적인 추상적 사고, 이성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발달을 보이게 된다. 한마디로 초·중학교 시기는 인간발달에 있어 매우 다양하면서도 급속한 발달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여러 발달 단계에 맞는 제재의 선택은 수업 목표의 도달에도 기여 할 것이다. 학년이 낮을수록 행위의 근본이 상과 벌이기 때문에 주제가 권선징악적인 것으로 제재를 선택하고, 단순한 어휘와 간단한 문장, 가족, 놀이, 학교와 같은 익숙한 환경으로 사건의 구성이 단순해야 하며, 등장인물이 신비성을 갖추어 환상적이고 흥미 위주의 제재가 알맞다.

학년이 높을수록 동화 속의 인물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동일시의 경향이 짙어져 작품 속의 인물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이시기의 동화는 인물 설정에 주의하여야 하므로 특별히 인물의 성격과 주제와 관련을 분석하여 작품을 선택하면 효과적이다. 내용 역시 환상적 내용을 갖추되 생명력을 갖춘 내용이어야 하며 단순한 사건 구성 보다는 행동, 분위기, 인물의 성격 묘사가 잘되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없이 현실성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친근감 있는 소재와 교훈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주제의 작품이 유용하다.

## 2) 동화의 교육적 기능

문학 교육의 목적은 문학적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상상력·사고력·창의력을 길러주며 정서적으로 인격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름다운 언어를 만남으로 해서 모국어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며, 간접적 체험을 충족시켜 준다는 데 문학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65)</sup>

### (1) 전래 동화의 교육적 기능

전래 동화는 상상력을 자극시켜주고, 유머가 포함되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또한 그 문화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또 강화시켜 준다. 학생들의 정서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주인공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구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전래동화 속에는 풍부한 행동이 담겨져 있고, 구연되어 전해지는 이야기로 단순하며 직접화법을 사용한다.

이야기에 대한 흥미는 세계와 현실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고 온갖 시련도 쉽게 이겨내는 힘을 준다. 뿐만 아니라 전래 동화는 환상성 즉 의인화된

---

65) 유창근, 『현대 아동 문학의 이해』, 동문사, 1997, 48쪽

동물, 식물 및 무생물, 초현실적인 존재, 요술적인 장소, 신비한 물건, 신비한 동물, 변형의 요술 등으로 인해 이야기에 끌리고 재미를 준다.

전래동화의 형식면에서 대립과 반복이 주는 교육적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립은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고도 현실의 문제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방식이며,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배한다는 신념을 나타내 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반복은 자세한 묘사나 서술을 생략하고서도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강조의 수단이다.

이러한 특징은 전래동화의 기억과 구연을 쉽게 하고, 형식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래동화를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학적인 경험을 통하여, 기초적인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감상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래 동화의 교육적 활용과 함께 전통 문화 교육을 위한 활용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전통문화란 민속 또는 생활 문화로서 한국인의 전통적인 생활양식, 행동원리, 사고방식과 의, 식, 주를 비롯한 기본생활과 관련된 도구와 기술, 신앙, 의례, 놀이, 예법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음악, 공연예술, 문학, 기타의 전통양식이 포함되는 매우 포괄적이고 복잡한 개념이다.

이처럼 전통 문화의 형식과 구조 및 그 기능과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방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 문화적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전래 동화의 적절한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래동화의 서사기능의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를 생각해 볼 때에도 전래동화는 문화 전승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전래동화는 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그 나라의 국민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화유산이다. 즉 전래 동화를 통해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문학적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전래동화는 학생들에게 우리 옛 문화를 전달하는 좋은 매체가 된다. 옛 문화를 전달하는 전래 동화는 그 민족의 사상, 감정 및 생활과 역사가 일관되어 나타난다. 즉 우리 민족의 이념적 가치 요소들이 투영되어 있는데, 낙천성, 성실성, 진실에 대한 신뢰, 운명 극복의 강한 의지, 화합적 인내와 끈기,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모습, 유교적, 민족의 문학이며 그 시대를 표현하는 민중의 문학으로 민중의 생활 경험이나 의식 혹은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민중의 주장이나 각성을 요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sup>66)</sup>

## 2) 창작 동화의 교육적 기능

창작동화는 공주 이야기나 왕자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을 준다. 그 꿈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희망찬 꿈이다. 사람과 짐승이나 작은 풀잎 하나라도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다. 창작 동화의 주제 역시 부모나 형제를 비롯한 가족간의 사랑, 독립심이나 책임감, 안전한 행동, 우정, 왕따, 학교생활, 선생님에 대한 성장 과정의 이야기가 많으며, 가정과 사회, 건강과 인간의 신체, 운송 수단, 식물과 정원, 예완 동물, 가축, 야생 동물, 공룡, 지구와 우주에 대한 정보에 관한 이야기, 상상력, 모험과 유머에 관한 선호도에 관한 이야기, 명절, 계절, 활동, 기념일, 음악과 노래, 놀이, 요리 등의 특별한 시간에 관한 이야기 등 다양하다. 이는 자아 정체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게 되는 과정, 감정 이입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여 주어 그 책을 읽는

---

66) 정 진, 앞의 논문, 123-124쪽

학생들에게 같은 과정을 겪게 한다. 그러므로 창작 동화의 교육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 ① 조기 경험을 통한 지식의 확대과 다양한 현상과 개념의 명료화
- ② 지식과 사고의 확산을 통한 인지능력의 촉진
- ③ 심미감과 창의적 표현 욕구의 개발
- ④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의 촉진
- ⑤ 독서 능력과 학습 능력의 향상 및 다양한 정서의 개발
- ⑥ 자신감과 성취감의 체험 및 성장 과정의 심리적 갈등과 문제 해결
- ⑦ 인간에 대한 탐색을 통한 삶의 지혜와 의미 발견

창작 동화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어서 동일시하기가 쉬우며, 이야기의 소재가 다양하고, 이야기 속에 유머가 있어 그것을 읽을 때 즐거움과 이해를 깊게 한다. 동화의 내용이 그것을 읽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유사한 것이어서 아동은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하고, 현실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며,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건전한 자아개념과 문제해결 능력을 고무시켜 준다.

이상의 논의 외에도 동화의 교육적 기능에 예술성 함양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성이란 넓은 의미로서의 미의시과 인간끼리의 사랑, 또는 인간과 사물과의 사랑에서 오는 심미적인 체험을 뜻하고 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미적 조화로서 학생들에게 수용될 때,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간관계의 신비스러움, 인간의 따뜻한 정, 인간 존재의 위대함, 사랑의 아름다움, 선의의 숭고함 등을 학생들은 동화를 통하여 느끼게 된다.

### Ⅲ.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실제 수업을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담론 및 그 실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sup>67)</sup> 이번 장에서는 제7차 중학교(7~9학년) 교과서에 동화가 어떻게 수용·활용되고 있는지 그 특성과 교육적 의의를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7차 국어 교육 과정과 문학 교육

##### 1) 7차 교육 과정의 특성

교육 과정이란 교육을 하기 위한 설계도로 목적에 따라 그 내용과 순서 및 비중과 자료들을 목표에 맞추어 짜놓은 구조체를 뜻한다. 즉, 학교가 학생에 대하여 선택된 교육적인 경험을 준비하여 학습에 의한 행동 변화를 초래케 하는 자료로 삼는 것이다.<sup>68)</sup>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학 교육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 교육은 국어교육의 일환으로 그 이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 과정 중 국어교육의 목표는 전문과 하위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의 “국어 생활을 정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하며, 언어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창조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을

---

67) 고영화, 「제7차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의 문학 작품의 수용 및 활용 양상」, 『문학과 교육』 제16호, 한국문학교육회, 2001, 112쪽

68) 허미은, 「동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원, 2001, 10쪽

기르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sup>69)</sup>라는 내용을 유추해 보면 문학 교육은 문학의 지식과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문화와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외에도 제7차 교육과정이 1학년에 10학년으로 통합됨으로써 학년간 문학 교육의 목표를 유기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의 문학 내용 체계의 특징은 제6차 교육과정의 ‘문학 작품의 이해’를 ‘문학의 수용과 창작’으로 통합하였다. 이것은 학습 활동에서 ‘문학 작품의 이해’와 ‘문학 작품 감상의 실제’가 통합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리하여 범주화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며 문학 작품의 이해가 작자 중심에서 독자 중심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런 전환의 이론적 배경은 ‘독자 반응 중심’ 혹은 ‘수용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여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작’을 신설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점은 문학교육에 있어 상당히 진일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학 영역의 학년별 내용은 내용자체의 난이도, 텍스트 등을 고려하고, 계열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다.<sup>70)</sup> 기본 활동은 모든 학생들이 그 단계 학습에서 도달하여야 할 문학 영역의 목표를 토대로 한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심화 활동은 기본 활동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빨리 도달한 학생을 위하여 제시한 활동 과정이다. 따라서 심화 활동은 문학 갈래 텍스트의 내용 난이도,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전략, 상황을 고려하여

69) 한국교육개발원, 「제7차 교육 과정 개발 연구」, 1997, 187쪽

70) 교육인적자원부, 전제서, 24쪽

제시하고 있다.

보충 활동은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과정에 제시한 영역별 교육 ‘내용’이 모든 학습자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의 성격으로 진술하였다는 점과, 특히 보충 학습을 실시해야 할 이유가 개별 학습자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용’ 관련 목표 성취를 위한 [보충] 학습은 학습자에게 제공한 자료, 학습자의 학습양식, 인지구조, 교수·학습방법, 선수 학습 요인의 습득 등 개별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보충 학습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sup>71)</sup>

넷째, 국어 교과서<sup>72)</sup> 속에 들어 있는 동화에 대한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단원 구성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원의 길잡이>

- 대단원의 학습목표(2개 항목)제시
- 대단원의 학습 내용 및 학습방법 안내

<소단원> 2~4개의 소단원

- |       |                        |
|-------|------------------------|
| 읽기 전에 | ● 읽기 전 활동과제            |
| 본 문   | ● 글 ● 날개(읽기 과정에 따른 활동) |
| 학습활동  | ● 내용학습 ● 목표 학습 ● 적용 학습 |

<생각 넓히기>

---

71) 중학교 국어 교과서 【보충·심화】 영역에 동화가 많이 수록되었음을 볼 때 동화 문학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72)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 국어』로 나누어 개발 되었는데,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문학 영역과 읽기 영역이 수록 되어 있는 『국어』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글에서 ‘국어 교과서’라 하면, 분책되어 있는 『국어』 교과서를 말한다.

● 모듈별 주제 활동 제시

<보충·심화>

● 자기 점검 과제 제시

<한자 공부>, <이 단원을 마치며>, <웹터>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교수·학습의 과정을 전·중·후로 체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 체계 속에 동화는 문학 교육의 한 방법으로, 문학 제재의 하나로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2) 수록 작품의 특성

새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작품을 통해 이전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새 중등 국어 교과서는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않고, 최근의 작품까지 수록하였다. 최근의 작품을 수록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제 경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문학 교육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얻지 못한 작품을 너무 성급하게 다루고 있다는 우려도 낳게 되었다.

둘째, 새 교과서에는 학생이나 비전문인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교과서를 전범(典範)처럼 생각하던 과거에는 문학적으로 미숙한 비전문인들의 작품을 교과서에 수록할 수 없었지만, 학생 중심의 활동과 과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에 따라 교과서에도 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작품이나 인터넷 문학 동호회에 올라온 비전문인들의 작품이 실리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 학생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요소의 작품들도 다루고 있다. 학생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창작활동도 고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새 교과서에는 외국 문학 중에서 제3세계의 작품 비중이 높아졌다. 외국 문학 작품의 경우 중국의 문학을 제외하고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서구 유럽권의 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새 교과서에는 서구 일변도의 접근 방식을 지양하고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그 동안 소외됐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구소련, 인도의 작품이나 북미 인디언의 작품 등 제3세계의 문학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 2.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의 분석

### 1)수록 양상

본 절에서는 수록된 작품을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갈래별, 주제별로 나누어 보고, 활용의 측면에서 학습 내용 요소를 분석하여 학생들과 동화 감상의 관계를 살펴보고,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동화 수록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한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의 편수는 38편인데 이중에는 동화의 형식으로 쓰여진 내용과 도입 단계에서 잠깐 언급되는 동화도 일부 들어 있음을 밝혀 둔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 대상 작품은 다음과 같다 .

<표1>중학교 『국어』 교과서 동화 작품

학 년	작 품 이 름	지 은 이	갈 래
1-1 (7학년)	아버지의 유물[기본]	미상	전래동화(민담)
	이해의 선물[기본]	폴발라드(미국아동문학자)	창작동화
	강아지 똥[보충·심화]	권정생	창작동화
	여우와 뱀[읽기전]	이솝	전래동화(우화)
	어린 왕자[생각 넓히기]	생텍쥐페리	창작동화(외국)
	(심에 표류한 사람들) 탈무드[보충·심화]	마빈 토케이(역사)	전래동화(민담)
	호랑의 권세를 믿고[보충·심화]	조정기 엮음<아흔아홉의 지혜> 중	전래동화(우화)
	바람을 파는 소년[보충·심화]	이준연	창작동화(국내)
1-2 (7학년)	키다리 아저씨[보충·심화]	진 웹스터	창작동화(외국)
	동명왕 신화[기본]	이만기엮음<한국의 대표 설화>	전래동화(신화)
	지네장터[기본]	서대석편<구비 문학>	전래동화(전설)
	우정의 길[기본]	편집부 엮음<한국인의 민담>	전래동화(민담)
	옛 이야기 속의 기상 현상[읽터]	<중학교 독서평설> (지학사,2000년9월 중에서)	전래동화(신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기본·예문]	작자 미상	전래동화(옛이야기)
	호랑이와 토끼[기본·예문]	작자 미상	전래동화(옛이야기)
	호랑이와 곱감[기본·예문]	작자 미상	전래동화(옛이야기)
	효녀와 산신령[기본·예문]	작자 미상	전래동화(옛이야기)
	장화 홍련전[기본·예문]	작자 미상	전래동화(옛이야기)
	아들을 던진 며느리 이야기 [기본·예문]	작자 미상	전래동화(옛이야기)
	효성스런 호랑이[기본·예문]	작자 미상	전래동화(옛이야기)
	우산장수 할아버지[보충·심화]	김철수	창작동화(국내)

학 년	작 품 이 름	지 은 이	갈 래
2-1 (8학년)	개미와 베짖이[기본·예문]	이솝	전래동화(우화)
	원수이면서도필요한까닭[보충·심화]	이광정 엮음	전래동화(우화)
2-2 (8학년)	민들레 연가[보충·심화·예문]	이해인 수녀 작품집	전래동화(전설)
	아기장수 우투리[기본]	서 정 오 엮음 ( 옛 이 야 기 보따리)	전래동화(전설)
	현명한 아내 만카[기본]	조안나쿨 엮음(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200가지 이야기중)	전래동화(체코 민담)
	원숭이와 거북[보충·심화]	바 이 다 바 < 판 차 탄 트 라 인도설화집 중에서 >	전래동화(인도 민담)
	바 리 데 기 바 리 데 기 바리공주야[보충·심화]	최래옥역음<한국의 민담 설화 시리즈>중	전래 동화(무속신화)
	이별편지 주머니[쉽터]	안데르센 이야기	전래동화(덴마크 민담)
	비누 인형[기본]	학생 작품	창작동화(국내)
3-1 (9학년)	마음, 향기[쉽터]	정채봉<스무살의 어머니>중	창작동화(국내 )
	엄마 무릎[쉽터]	이 승 은 < 엄 마 어 려 트 을 적엔>중	창작동화(국내)
	성실이라는 무기[쉽터]	박인식 , 이미애 엮음 (TV 동화 행복한 세상)중	창작동화(국내)
	고정 관념[쉽터]	이철환,<연탄길>	창작동화(국내)
3-2 (9학년)	길 잃은 태양 마차[기본]	이윤기 옮김,<그리스로마 신화>	전래동화(그리스·로마 신화)
	순금처럼[쉽터]	안 순 혜 , 양 은 숙 < 바 보 돼 지 > 중	창작동화(국내)
	마술사과<쉽터>	마빈토게이어,<탈무드>	전래동화(유대인 민담)

<기본 영역>에 17편, <보충·심화>영역에 10편, <생각 넓히기>에 1편, 대단원 <읽기 전에>2편, <쉽터>에 8편이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해 보면 장르의 체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 3단원 ‘문학과 의사소통’에는 고전 수필에 해당하는 「스스로 터득한 지혜」와 「현이의 연극」(수필), 정지용 시인의 「호수」가 섞여 있고, ‘보충·심화’ 학습에 「탈무드 이야기」와 「호랑이 권세 믿고」가 있으며, 그 끝에는 친구 독자에게 시 쓰기가 느닷없이 돌출 되어 있다.

1학년 1학기 2단원 ‘읽기와 쓰기’의 소단원 (1)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읽기 전’ 중 남학생의 자기 고민이 담긴 편지와 [보충·심화]에 이은상의 ‘한눈 없는 어머니’라는 편지 작품이 있다. 그러나 1학년 2학기 1단원 ‘능동적으로 읽기에’는 (1)화가 이중섭(전기문)과 (2)떡어서 죽는다(수필)와 함께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글 형식의 동화가 [보충·심화]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문학의 여러 장르를 장르대로 학습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이렇듯 교과서에는 동화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동화를 접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문학을 삶의 표현으로 접근하기보다 문학 이론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화에 대한 이론적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다른 장르와 차별화 되는 ‘동화’만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록된 작품 역시 내적인 연관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장르별로 묶고 장르 안에서도 내용이나 문학 요소 즉 연관성을 가진 작품을 묶음으로써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 다른 문제는 학년별로 위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과 중등 교과서의 연계뿐만 아니라 중학교 7, 8, 9,학년 과정의 교과서

에 수록된 동화만 보아도 인지적·정의적 발달 수준에 따른 위계를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 문학의 즐거움의 [보충·심화]에 실려 있는 권정생의 <강아지 똥>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읽기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중학교 단원의 학습활동은 ‘깨달은 점을 써 보자’라는 단답적이고 단편적인 답을 요구하고 있어, 초등학교 1학년의 학습활동보다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동일 작품에 대한 재해석의 문제도 있겠지만, ‘자존감·자기 인식’의 같은 주제에 다른 작품을 수록함으로써 좀 더 학생들이 문학을 향유하고 즐기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문학 교육에서 이런 위계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고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문학(국어)교육 담당 교사들과 문인집단, 그리고 아동, 청소년기의 인지적·정의적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의 성과가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학 교육에서는 목표와 지향점을 올바르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를 갈래별,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활용양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 (1)갈래별 양상

### ① 전래 동화

전래 동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 우화, 옛날이야기가 포함 된다.먼저, 신화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단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전설, 민담이 인물을 설명 혹은 막연히 옛날 옛적이라고 시작하는 반면 창조적인 발생에 관한 사건, 즉 태초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4편이 각 학년의 2학기에 실려 있다. 1-2학기에는 <동명왕

신화>와<단군신화>가 있고, 2-2학기에는 무속 신화인<바리데기 바리데기 바리공주야>, 3-2학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인<길 잃은 태양 마차>가 있다.

“-----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의 신단수에 내려와 신시에 이르러, 그가 곧 환웅 천황이다. 그는 풍백(風伯), 우사(雨社),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을 다스렸다. 이 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단군신화> 중에서—

신화는 일상생활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 우주, 인류, 문화 등의 기원을 설명하는 공상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신화 속에는 서술적인 묘사보다 행동적인 묘사가 많다. 그리고 풍부한 환상과 마술적 요소와 상상의 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신화의 내용은 선이 승리를 악이 벌을 받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극적인 요소와 박진감이 있다.

한편, 전설은 어떤 사물이나 인물에 관한 사실의 전승 또는 믿는 이야기가 오랜 옛날부터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특정의 지역, 사물, 인물을 둘러싼 이야기로서 문화사적 합리화의 경향이 강하여 신비성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서에는 수록 전설은 1-2학기에 <지네장터>와 2-2학기에 <민들레 연가>와 <아기 장수 우투리>가 실려 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왕에게 몹시 미움을 받은 운명의 별이 땅에 떨어져 민들레가 되었다고 한다. 민들레의 하얀 씨가 날개를 쳐 하늘로 나는 것은 민들레가 별의 혼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옛날, 이 땅에 큰 홍수가 났을 때 다른 것들은 다 피신하였는데, 뿌리가

깊은 민들레만 피신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이후로 민들레는 하느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금빛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민들레 연가〉중에서-

전설은 구체적인 물체나 사건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의 장단을 화자가 자유  
로이 조절하여 할 수 있고, 시대와 장소, 주인공이 있어서 사실로써 받아들  
이고 싶은 심리를 유발시킨다.

민담은 ‘민담’이라는 용어와 병행해서 민화, 동화, 전래 동화 등의 학술 용  
어가 있다. 우리나라의 관용어로 이바구, 이야기, 옛날 등이 있다. 한때 민화  
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엄격히 말해서 이 말은 민간 설화의 약어가 아  
닌가 생각한다.<sup>73)</sup>

교과서 수록 민담은 1-1학기 <아버지의 유물>, 1-2학기<우정의 길>,<탈  
무드<sup>74)</sup>-섬에 표류한 사람들>,2-2학기<현명한 아내 만카>,<원숭이와 거북  
이야기>, 3-2학기<탈무드-마술의 사과>가 실려 있으며 우리나라 민담을 비  
롯 세계 여러 나라 민담의 소개를 통해 각 나라의 정서와 가치관을 알 수  
있게 하였다.

---

73) 요정담(fairy tale) : 영어에서는 ‘요정담’이라 하는데, 등장인물에 꼭 요정이 있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정의 이야기(household story)’라거나 그냥 ‘민화 (folktales)’로  
부르기도 한다.

민화(folktales) : 민간설화의 준말로 전설, 세상이야기, 수수께끼, 속담 등을 포함한 민  
간 전승 문예 전체를 가리키고 옛날 이야기는 그 일종의 특정 양식을 가지 이야기로  
본다.

74) 탈무드’란 히브리어로 ‘가르침에 관한 교훈, 또는 약속’이라는 뜻이며 수만명의 랍  
비(유대인들의 훌륭한 스승)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며 얻  
은 결론을 엮은 책이다‘사람이 살아 있는 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지식  
이다’라는 유대인의 속담처럼, 유대인은 자식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  
정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어 왔다.

옛날에, 어느 임금에게 외동딸이 있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이 귀한 딸이 그만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다.

임금은 온 나라에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사위로 삼고, 왕위를 넘겨 주겠노라!' (중략)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세 형제는 서로 공을 다투게 된 것이다. 맏형이 말했다.

“내가 마법의 망원경으로 이 사실을 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겠느냐?”

그러자 둘째가 나섰다.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셋째가 말했다.

“만일 내 마법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이 나았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다.

-<마술의 사과>탈무드 중에서-

탈무드의 답은 '마법의 사과를 준 형제'이다. 왜냐하면 마법의 망원경을 가진 형과 마법의 양탄자를 가진 형은 아직까지는 그들의 소중한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과를 가지고 있던 막내는 그것을 공주에게 다 먹였으므로, 결국 모든 것을 다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민담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교훈적인 주제를 설정하여 창작한 이야기로서 시간적 관념이 자유롭고 장소도 불분명하고 권선징악의 주제가 많다.

우화는 주로 동물을 빌어 인간성을 풍자하거나 교화하려는 짧은 이야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해학적이며, 주제를 숨겨 놓은 것이어서 어려운 내용들도 많다.

교과서 수록 우화는 1-1학기<여우와 뱀>와 <호랑이의 권세를 믿고>, 2-1학기<개미와 베짚이>와 <원수이면서도 필요한 까닭>, 2-2학기<원숭이와 거북 이야기>가 실렸다.

순간 원숭이는 정신이 아뜩해졌습니다.

‘아뽀싸! 늘그막에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변을 당하는군!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평온하고 안락하게 살지만,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과 곤경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 옛말이 꼭 들어맞는군. 기지를 발휘해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해!’ (중략)

원숭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야 나무 위에 있지! 거기까지 데려다 준다면 당장 그것을 꺼내 오겠네.”

거북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혼자말을 했습니다.

‘굳이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군. 원숭이란 놈이 이렇게 순순히 응할 줄은 몰랐어.’

거북은 원숭이를 해변으로 데려다 주었고, 원숭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북은 설레는 가슴으로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원숭이가 내려오지 않자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친구여, 왜 이리도 오래 걸린단 말인가? 심장을 가지고 어서 내려오게나.”

원숭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가? 내가 얼뜨기인줄 아는 가?”

〈원숭이와 거북이야기〉중에서-

동물의 의인화는 동화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수많은 동화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우화는 겉모습만 동물일 뿐 인간의 어떤 한 단면에 대한 상징 외에 동물로서의 아이덴티티나 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의 등장이다.

옛날이야기는 특정한 시작의 말과 끝맺는 말이 있다. 그 사이에 몇 개의 모티브를 꾸며서 한편의 이야기로 구성한다.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는 비슷한 행위를 세 번 반복한 다음 클라이맥스로 이른다.

교과서 수록 옛날이야기는 1-2학기 5단원. 글의 짜임 중 소단원 (1) 설화 속의 호랑이의 본문 속 예시 작품으로〈해와 달이 된 오누이〉, 〈호랑이와

꽃감>, <호랑이와 토끼>, <효녀와 산신령>,< 장화 홍련전>,<아들을 던진 며느리 이야기>, <효성스런 호랑이>,2-2학기 2단원. 이야기의 구조 ‘읽기 전 활동’에 실려 있는 <알라딘과 요술 램프>가 있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산 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그는 두려움에 떨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호랑이를 ‘형님’이라고 불렀다. 호랑이가 그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을 묻자, 그가 말했다. (중략) 호랑이 새끼들은 할머니가 돌아 가셨기 때문에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효성스런 호랑이> 중에서—

이 이야기에는 나무꾼을 자기의 동생으로, 그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아는 호랑이의 정과 의리가 잘 나타나 있다.

## ② 창작 동화

교과서 수록 창작 동화로는 1-1학기에 <이해의 선물>, <강아지똥>, <어린 왕자>,<바람을 파는 소년>, 1-2학기에 <키다리 아저씨>, <우산 장수 할아버지>, 2-2학기에<비누 인형>, 3-1학기에 <마음,향기>,<엄마 무릎>, <성실이라는 무기>,<고정관념>,<순금처럼>을 볼 수 있다.

(중략) 연희는 방문을 열고 비에 젖은 몸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비누 인형을 놓아 둔 창틀을 보았다. 그러나 어디로 사라졌는지 비누 인형은 온데 간데 없고 방 안 가득 비눗 방울만 날리고 있었다. 연희는 멍하니 방 가운데 서 있었다. 비누 인형과 소꿉 장난 하던 일, 흥놀이를 하던 일 노을을 바라보며 언제까지나 함께 하자고 약속 했던 그 날이 꿈처럼 느껴졌다. 바람을 타고 흩날리던 비눗방울은 작은 창문을 넘어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한 먼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다. — <비누 인형>중에서—

창작동화는 인물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특징을 지닌 개성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고, 소재를 현실에서 구하며 표현 방식도 묘사적인 제시와 대화에 의존하고, 문체도 세련된 감각을 지니고 있다. 주제는 현실적 삶의 사실성과 순수 동심의 구현, 자연과의 교감 등 보다 인간적인 정서 표출에 주력하고 있다.

## (2) 주제별 양상

동화작품의 주제는 작가의 사상이 동화의 구성요소인 인물, 배경, 구성, 문체를 통해서 실현된 것이다. 동화의 주제에 포함되어야 할 가치는 표면적이고 지엽적인 교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보편적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표2> 교과서 수록 작품의 주제

학 년	작품명	주 제
1-1학기 (7학년)	아버지의 유물	보잘 것 없는 아버지의 유물을 사용하여 부자가 된 형제의 재치와 슬기
	이해의 선물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지켜 주려는 어른들의 아름다운 노력
	강아지 똥	세상에 태어난 이상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여우와 뱀	무조건 남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려는 것을 훈계
	어린 왕자	친구들끼리는 숫자보단 마음이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섬에 표류한 사람들 (탈무드 중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일과 여가에서)
	호랑이의 권세를 믿고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지 말자.
	바람을 파는 소년	옛 것(전통문화)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
1-2학기 (7학년)	키다리 아저씨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간직하는 희망
	동명왕 신화	동명왕의 위대함과 고구려의 건국
	지네 장터	순이의 착한 마음씨와 두꺼비의 은혜 값음
	우정의 길	진정한 우정은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옳은 길로 안내하는 것이다.
	옛이야기속의 기상현상(단군 신화)	인간사와 관계에서 사고 해 온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권선징악
	호랑이와 꽃감	호랑이의 어리석음
	호랑이와 토끼	지혜의 소중함
	효녀와 산신령	딸의 지극한 정성
	장화홍련전	계모와 이복동생에 대한 원한
	아들을 던진 며느리	시아버지를 구한 며느리의 지극한 사랑

학 년	작품명	주 제
1-2학기 (7학년)	효성스런 호랑이	호랑이의 따뜻한 정과 의리
	우산 장수 할아버지	살신성인을 실천한 고집쟁이 할아버지의 숭고한 정신
	개미와 베짚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
2-1학기 (8학년)	원수이면서도 필요한까닭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민들레 연가	세속적 고뇌와 갈등을 극복하는 성직자의 깊은 깨달음
2-2학기 (8학년)	아기 장수 우투리	영웅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소망과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우리의 절실함
	현명한 아내 만카	지혜를 이용한 위기의 탈출과 행복의 성취
	알라딘과 요술램프	요술램프를 통한 알라딘의 모험
	원숭이와 거북	어려움을 극복 할수 있는 지혜의 소중함
	바리데기 바리데기 바리공주야	바리데기의 시련과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이별편지 주머니	안테르센의 지고지순한 사랑
	비누 인형	친구없는 가난한 아이의 외로움
3-1학기 (9학년)	마음, 향기	마음이 느려지고 있는 현대인과 작은 것에서 기쁨을 얻는 삶의 기쁨
	엄마 무릎	어린시절 느꼈던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
	성실이라는 무기	군인으로서 지닌 양심과 성실함
	고정 관념	마음과 의식 속의 고정관념에 탈피하자
3-2학기 (9학년)	길 잃은 태양 마차	질서에 수용하는 삶, 허영심과 자만이 부른 파멸
	순금처럼	욕심을 비롯한 많은 불순을 제거해야 한다
	마술 사과	모든 것을 받쳐서 목적을 달성하는 삶의 지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작품은 교훈적인 주제보다는 순수 미적인 주제에 좀더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래 동화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기준과 창작 동화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옛날과 오늘날의 의식 수준이 다르고 시대상의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 가치 기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이어져 보여 지는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른에게 전면적으로 의존해 왔던 태도가 자주적인 태도로 이양하고 현실 사회로 눈을 돌린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체로 이야기 중 인물의 행동에 공감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에게의 적응보다는 친구간의 적응이 중심이므로 우정이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집단적 행동이나 자치적 활동에 관심을 높인다. 특히 이때는 그룹을 만들어 비밀 모험을 즐기기를 좋아한다. 지적인 면에서는 과학적인 흥미가 증진하므로 미지 세계의 정복을 구하는 등 지적인 행동반경이 넓어진다. 즉, 무대가 현실 세계로부터 우주로 넓어지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현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의 하나는 친구이다. 가정이나 동네에 한정되어 있던 그들의 삶이 학교라는 공동체로 이동된 후 유치원, 초등학교를 지나 그 동안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교훈적인 주제보다 순수미적 주제 사랑과 우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상한 것, 신기한 것을 찾아 모험을 떠나고 싶어 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반영되는 환상과 현실의 적절한 조화에서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상과 현실이 결합된 신화와 전설이 전 학년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신화와 전설 속에는 인류 유년기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그때 사람들의 사

고방식, 희망, 가치관이 들어 있다. 가장 오래된 아름다움, 신선함, 이상스러움, 무서움은 학생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신화가 오래 된 옛날부터 구전으로 내려오게 된 것도 이러한 매력 때문이다.

신화·전설 속에는 인류의 꿈과 희망이 들어 있다. 고대인들은 삼라만상을 자기들과 같은 생물이라고 생각하고, 자연 현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비한 것이며, 인간의 힘이 감히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신화를 읽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양탄자, 마법, 공주, 왕자의 이야기에 젖어 있던 그들이 천지창조, 나라의 시조, 마을의 전설 등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됨으로써 상상력의 폭이 넓어진다.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가정의 중요성, 자기 인식, 인간성 회복, 전통문화의 보전, 과학정보 등의 주제가 많이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변화해가는 시대상에 맞추어 꼭 필요한 주제들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동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 목표 도달에 적합한 제재만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학년별로 작품 감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저학년에서 자기 주변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중학년에서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든지, 고학년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문제들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정 게재하는 주제의 균형적 계통성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학년별로 작가가 중복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1-1.3단원의 <읽기 전>에 게재된 우화 ‘여우와 뱀’ 과 2-1.1단원 <문학 작품의 감상>에 예문으로 실려 있는 ‘개미와 배짱이’ 는 이솝의 작품으로, 또한 1-1.3단원 <보충·심화>의 ‘섬에 표류한 사람들’과 3-2학기.5단원 <쉽터>에는 ‘마술

의 사과'는 <탈무드>에 수록된 같은 작가의 작품이 실려 있다.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사상이나 주장이 반영되어 있다. 즉 작가는 삶을 의식하고 의식한 내용을 문학적 장치 안에 짜임새 있게 펼쳐 놓음을 생각할 때, 한 작가의 작품이 여러 번 실리는 것은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동화 교재 내용의 반복과 심화는 학년별로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으나, 학습 목표 도달에만 적절한 제재를 선정하여 학년별 주제의 균형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가와 제재의 반복이 눈에 띄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갈래별 문학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제재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점 또한 부족하다. 동화 선정을 할 때에는 전 학년에서 배운 내용이 후속 학년에서 반복 심화되면서 작품의 주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전래 동화와 창작 동화 중에서 주제 전달이 명확한 몇몇 작품들을, 예문을 통해 수록된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 ①. 전래 동화

### 가. 옛 이야기에 묻어 나는 조상들의 슬기와 해학

전래동화에서는 조상들의 생활에서 슬기로우심을 배울 수 있는 소재가 많음을 보여주고, 오늘날 학생들에게 옛 것의 소중함을 간접 체험으로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건의 전개는 인과성보다는 의외의 변화에 대한 흥미 위주이다. 또한 지혜로움은 주인공이 대부분 아동이나 약자들로 강자들의 억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용기와 정의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략) 호랑이는 오누이를 쫓아 나무 위로 올라가려 했다.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누이는 나무 밑에서 어르렁 거리는 호랑이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오누이가 시키는 대로 한 호랑이는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호랑이가 마침내 오누이 가까이로 다가오자 오누이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

“저희들에게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 주세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 왔고,

오누이는 호랑이에게 벗어 날 수 있었다.

호랑이는 또다시 오누이에게 어떻게 올라갔는지 물었고,

오누이가 시키는 대로 한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이 끊어져 죽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중에서-

떡장수 어머니까지 잡아먹은 호랑이가 위협을 가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한 남매의 지혜와 슬기가 엿보이는 작품이다.

### 나.우리 민족의 윤리 의식과 으뜸 미덕

복잡한 사회구조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의식과 가치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효도·보은의 주제를 담은 작품의 빈도 수 역시 이를 대변하고 있다. 즉, 전래동화보다 창작동화에서는 낮은 빈도를 보인다.

효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에게 가장 으뜸의 미덕이며 윤리의식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에 입각하여 이의 덕목이 강조되어 왔다. 사람의 가장 근본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이를 어기면 ‘背恩忘德’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서로 간에 등을 지게 된다.

효도·보은·가족애는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덕목으로써 시대를 초월하여 강조되어야 하며 학년마다 수록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옛날에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기다리던 며느리가 고개에 이르러 보니

호랑이가 숲에 취해 잠든 시아버지를 해치려고 하였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업고 있던 아들을 호랑이한테 던져 주면서 말했다.

“호랑아, 배가 고프면 이 아이를 잡아먹고, 우리 아버님 해치지 마라.”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왔다.

이를 본 호랑이는 그 아이를 잡아먹지 않고 물어다가 동네 어귀에 놓고 갔다.

이튿날 아침, 이웃 사람이 그 아이를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아들을 던진 며느리>중에서-

이 이야기 속의 호랑이는 며느리의 효성에 감동하여 어린아이를 살려 주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비는 천장을 향해 푸른빛을 쏘아 올렸다.

천장에 있던 지네도 독을 뱉으며 두꺼비와 겨루기 시작했다.

푸른 불줄기와 붉은 불줄기가 어우러져 맹렬히 싸우기를 날이 셀 때까지 계속 하더니, 마침내 천장에서 무겁고 커다란 것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지네장터>중에서-

<지네장터>는 보은형의 동화로 동물과 사람의 관계를 설정하여 사람이 배푼 만큼 동물들도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을 우화적으로 표현하였다. 즉,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의 친화적인 삶을 보여주며, 동물이나 짐승을 대비시켜 교훈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 다. 과욕과 오만을 멀리한 겸손한 삶

우리 사회는 옛날 물질적 빈곤 속에 살면서도 재물을 탐하는 것에 대하여 천박하게 여기는 유교적 가치관이 강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당한 욕심을 부리면 절대자나 권위자로부터 벌을 받거나 이웃들로부터 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다는 도덕관이 강하였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공한 쪽도 나누어 먹는 옛말처럼 전래동화에는 탐욕을 멀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남의 것을 탐하는 행동으로 벌을 받는 우화적인 내용,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다 손해 보는 일, 남은 생각하지 않고 오만으로 벌을 받는 작품들이 있다.

욕심을 부리다 허리가 부러진 이야기 속의 주인공 <여우와 뱀>에 여우, 태양의 마차를 몰게 되면서 하늘과 땅, 바다에 술한 재앙을 뿌리다 최후에는 파멸을 맞게 되는 <길 잃은 태양마차 >의 파엔톤이 대표적인 주인공이다.

#### 라. 힘 센자까지 물리치는 지혜의 소중함

어리석고 판단을 잘못하여 화를 입거나 손해를 당하는 경우의 전래동화이다.

옛날, 어느 겨울날이었다.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토끼를 잡아 먹으려 하니,

“대왕님, 대왕님께서 조그만한 저를 잡수신들 시장기를 면하실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왕님께 맛있는 고기를 배블리 잡수실 있게 해드릴테니

제가 말씀 드리는 대로 해 보십시오.

그래도 배가 부르지 않거든 그때 저를 잡아 잡수십시오”

호랑이가 좋다고 허락하니, 토끼는 호랑이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서

꼬리를 깊숙이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가 꼬리에 매달릴 것이라고 하였다.

호랑이가 꼬리를 빼려고 하면, 토끼는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였다.

호랑이가 꼬리를 담그고 새벽까지 있자,

연못의 물은 호랑이의 꼬리와 함께 퐁퐁 얼어 붙었다.

토끼는 숨어서 호랑이가 나무꾼들에게 맞아 죽는 것을 본 후에 여유있게 제 집으로 돌아갔다.

-<토끼와 호랑이>중에서-

이 이야기는 호랑이의 어리석음과 토끼의 지혜를 통해, 힘이 센자와의 대결에서도 지혜만 있으면 승리를 거두고 살수 있다는 삶의 교훈도 함께 담고 있다.

#### 마. 근면과 성실로 일구는 풍요로운 삶

근면·성실은 농경사회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었다. 오직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만이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던 시절이었다. 전래동화에는 그 시대 상황과 우리 선조들의 삶을 담은 이야기가 유익하게 재구성되어 온 것으로 볼 때 이의 주제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다. 오늘날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맹목적인 부지런함보다는 능률적이고 과학적이며 효율성을 올리는 근면과 성실성을 요구하고 있다.

개미는 여름내내 열심히 일을 하여 겨울 식량을 미리 준비한다. 그러나 베짚이는 일을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른다. 겨울이 되어 베짚이는 개미를 찾아가 식량을 구걸한다.

개미는 베짚이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에게 식량을 준다.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부지런히 일한 개미는 겨울이 와도 따뜻하고 풍족하게 살지만, 놀기만 했던 베짚이는 겨울이 오면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미와 베짚이>중에서-

<개미와 베짚이>에서 종래에는 개미의 근면함과 베짚이의 게으름을 대비시켜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양한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다. 개미의 근면함 못지않게 베짚이의 음악적 재능도 가치롭다고 가르쳐야 한다.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가 운동으로 벌어들이는 외화와 연예인·가수·한국영화 등 음악, 문학, 영화 산업이 국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도 알게 한다. 학생들에게 각자의 소질과 능력에 맞

는 꿈을 찾아내어 그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태도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②.창작동화

### 가. 정신적 가치가 중요한 참된 우정의 의미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의 하나로 교우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화해, 우정 등의 문제 해결에 본보기가 될 만한 작품들이 있다.

욕심 많은 남자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오랜 세월 금을 제련하며 살아온 죽마고우였습니다.

“자네는 매일 금을 만지니 좋겠네. 나도 자네처럼 금을 만지며 살고 싶다네.”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는 도가니를 꺼내 끓고 있는 금물을 용기에 부었습니다.

온 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한참 후에야 갈아 입으며

친구는 굳어진 덩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불순물 투성이었어. 마치 욕심 많은 인간처럼 말이야.

여러 번의 제련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야 비로소 순금이 된다네.”

친구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걸 내 얼굴에 비춰 본다네. 내 얼굴이 말갈게 비춰지면 순금이라는 증거가 되지.

그리고 순금처럼 되기 위해 내 삶에서 버려야 할 불순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네.” -<순금처럼> 중에서-

물질적인 도움에 의한 것만이 우정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에 의한 삶의 도움을 주며 관계 맺고 지내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해 주는 이야기이다.

### 나. 인간성 회복을 위한 따뜻한 인간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서로를 존경하고, 의지하는 따뜻한 인간미를 바

탕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불신의 시대, 남을 위할 줄 모르는 인간성 상실의 사회로 변해 가고 있어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따뜻한 인간미의 육성이 교육의 제일 목표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장점에 자신감을 갖고 계발해 나가면 자신도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 동화 <강아지 똥>이 있다.

오늘날 핵가족화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늘고 있고, 이혼, 사고사 등으로 인한 소년 소녀 가장과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다. 가정의 소중함, 가족간의 사랑, 이웃과의 관심을 동화 작품을 통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내면화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순수 창작동화가 더욱 많이 수록되어 동화의 예술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 다.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의 싹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원화되고 도시로 집중화되면서 대화의 부족, 서로의 불신 등으로 나와 가족간, 이웃간, 친구간에 벽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점수화 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중략) 할아버지는 망가진 우산을 다시 하나하나 고치고 계셨습니다.

영신이는 우산 장수 할아버지가 벌써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헌 우산을 고쳐서,

비가 올 때는 아무나 가지고 가도록 하고, 다시 비가 그치면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봉사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망가진 우산을 고치시다 말고 물끄러미

비가 내리는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세요?”

“영신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니?”

“궁금해요. 할아버지, 이야기해 주세요.”

영신이는 할아버지 곁으로 바싹 다가섰습니다.

-<우산 장수 할아버지> 중에서-

봉사하는 생활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의 싹이 있으면 가능하다.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의 싹을 틔워주는 것이 감동이 담긴 동화작품이다. 남을 도와주고 행복해하는 주인공의 마음이 물결처럼 잔잔히 번져나가 봉사정신이 싹트고 꽃을 피워 실천으로 옮겨지도록 해야 한다.

#### **라. 정직과 착함이 바탕된 정의롭고 더불어 사는 사회**

정직·착함의 주제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인간이 신뢰하고 베풀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우리나라 근·현대사나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순수하고 착하게 자라는 학생들에게 남겨주지 말아야 한다.

쓰레기 만두 파동, 공업용 기름을 사용한 라면 사건, 석회 가루를 섞은 밀가루 사건 등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악덕 기업인이나 병든 상흔이 판치는 세상에서, 양심을 지켜 정직한 삶을 영위하는 가치관의 소중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 시대적 어두운 면이 시사화 되고 세인의 관심을 끌면서 정직한 인간성을 기르는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

한 군사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략) 그런데 유독 장거리 구보만 하면 영락없이 대열에서 떨어져  
외롭게 달리는 꼴찌 병사가 있었습니다.

(중략)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 눈앞에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쌍갈래였습니다.

각각의 길 앞에는 이정표가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 길은 사병이 달리는 길,  
왼쪽 길은 장교가 달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쌍갈래 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장교가 달리는 길이 더 짧거나 편하겠지.’ 보는 사람도 없는

편한 길로 달릴까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사병이 달리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저 버릴 수 없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성실이라는 무기>중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론 눈에 보이는 이익에, 달콤한 양심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실이라는 무기로 양심  
을 지킨 한 병사의 이야기는 진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직, 책임감, 성실성, 주인정신이 강조 되어 있는 동화 작품의 양을 늘려  
학생들의 정직함을 내면화 시켜 어떤 경우에도 부정행위와 행동과 생각으로 양  
심과 타협하지 않는 진실한 한국인의 모습을 지닐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이끌어야겠다.

청소년 시기는 존재의 근원과 현실의 문제에 대해 매우 왕성한 의문을 갖  
게 되는 시기이다. 삶과 죽음, 성, 선악의 문제 등 사회 현실에 대한 가치판  
단이 이 시기에 대부분 정립된다. 그러므로 성년이 되기 위한 다양한 ‘통과  
의례’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은 비판적 사고나 창조적 상상력 날카로운 심미  
적 감수성을 함양하게 된다. 문학교육은 당연히 그 중심에 놓여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남북 민족의 동질성 문제, 민중 정권 정  
신의 계승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문제, 신구 세대간의 갈등, 소외 계

층의 문제, 실존적 정체성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동화를 읽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문제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는 수업 또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선정한 주제와 책에 따라 토론의 내용은 달라질 것이지만, 사회 주변부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처한 처지에 깊이 공감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내가 만약 책 속의 주인공이라면?’ 이라는 발문으로 공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문제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모순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3) 활용 양상

다음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 되어 있는 동화 작품이 학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화 작품에 수반되는 대단원 학습 목표와 소단원 학습 목표는 <표3>으로 제시하고, 각 작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은 <표4>로 제시해 보았다.

<표3>

학년 · 학기	대단원명 · 수록작품	대단원 학습목표	소단원 학습목표
1-1 (7학년)	I. 문학의 즐거움 (2)아버지의 유물 (4)이해의 선물 *강아지똥[보충 · 심화]	○내용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 ○글을 읽고 느낀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옛날 이야기를 읽고 재미 있었던 점을 말할 수 있다 ○옛날 이야기를 읽고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문학 작품을 읽고 느낀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즐겨 읽을 수 있다
	II.문학과 의사 소통 *여우와 뱀[읽기전에] *어린왕자[생각 넓히기] *탈무드(섬에 표류한 사람들) *호랑이의 권세를 믿고 [보충 · 심화]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를 이해 할수 있다 ○의사 소통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V.삶과 갈등 *바람을 파는 소년[보충 · 심화]	○작품속에 나타나는 갈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갈등의 해결과정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1-2학기 (7학년)	I.능동적으로 읽기 *키다리 아저씨[보충 · 심화]		
	II.문학의 아름다움 (4)옛이야기 동명왕신화 *지네장터 *우정의 길	○문학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일상 언어와 문학언어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다.	
	IV. 시의 세계 *옛이야기 속의 기상 현상(단군신화) [쉽터]	○시의 언어가 가진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시에 드러난 현실 상황을 이해하여 감상 할 수 있다	

학년 학기	대단원명 · 수록작품	대단원 학습목표	소단원 학습목표
2-2학기 (8학년)	II.이야기의 구조 (1)아기장수 우투리 (2)현명한 아내 만카 *알라딘과 요술 램프[읽기 전에] *원숭이와 거북이야기[보충 · 심화] *바리테기 바리테기바리공주야[보충 · 심화]	⊙이야기에는 그나름의 구조가 있음을 안다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이야기에 담긴 교훈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IV.교과서, 어떻게 공부할까? *이별편지 주머니(안데르센 이야기) [쉽터]	⊙내용의 전개방식에 유의하며 교과서를 읽을 수 있다 ⊙편집체제와 표지에 유의하며 읽을 수 있다	
	V.창작의 즐거움 (2)비누인형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즐거움을 맛 볼수 있다. ⊙문학작품을 즐겨 읽고 창작하는 태도를 지닌다	⊙주제 파악하기 ⊙주인공의 성격과 가정환경 알기 ⊙설정된 배경의 특징알기
3-1학기 (9학년)	I.시의 표현 *마음, 향기 [쉽터]	⊙시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이해 할수 있다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며 시를 감상할 수 있다	
	II.중심내용 파악하기 *엄마무릎[쉽터]	⊙글을 읽으며 중요한 문장을 파악할 수 있다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할수 있다	
	III. 독서와 사회 *성실이라는 무기[쉽터] *고정관념[쉽터]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음을 알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해서 설명할수 있다	
3-2학기 (9학년)	I.창조적인 문학체험 (3)길 잃은 태양 마차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문학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작품을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다	
	V.글과 표현 *마술의 사과	⊙글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찾아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표현방법이 주는 효과를 이해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표 4>

학년 · 학기	대단원명 · 수록작품	학습 활동
1-1 (7학년)	I. 문학의 즐거움 (2)아버지의 유물	○이야기의 구조 파악 ○읽 전후의 공통점과 차이점 말하기 ○뒷이야기 만들기 ○비현실적 요소 찾기 ○내면화 하기
	(4)이해의 선물	○각각의 장면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장르 바꾸기(소설⇄영화) ○소설 속의 인물되어 상상해 보기
	*강아지똥[보충 · 심화]	○‘강아지똥’을 읽고 깨달은 점을 간단하게 적어 보자
	II.문학과 의사 소통 *여우와 뱀[읽기전에]  *어린왕자[생각 넓히기] *탈무드(섬에 표류한 사람들) *호랑이의 권세를 믿고[보충 · 심화]	○이야기 의미 알기 ○작가가 작품을 쓴 의도 알기 어른과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 알기 ○생텍쥐베리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인물의 성격에 대해 알기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에 대해 알기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의미 알기 ○등장인물의 내면화 하기 ○내용 이해하기 ○호가호위 고사성어의 사용 예 알기
	V.삶과 갈등 *바람을 파는 소년[보충 · 심화]	주인공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생각해 보자 ○주인공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지 적어 보자
1-2학기 (7학년)	I.능동적으로 읽기 *키다리 아저씨[보충 · 심화]	주인공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추측해서 써보자
	II.문학의 아름다움 (4)옛이야기 동명왕신화 *지네장터	○옛이야기의 내용을 생각하며 물음에 답해 보자 ○인상적인 부분을 써보자 그리고 느낀 점

	*우정의 길	또는 교훈을 적어보자 ○ 인상적인 부분을 써보자 그리고 느낀 점 또는 교훈을 적어보자
	IV. 시의 세계 *옛이야기 속의 기상 현상(단군 신화) [첨터]	옛날과 오늘날의 기상 현상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1-2학기 (7학년)	V.글의 짜임 (1)설화속의 호랑이 -예시 작품- ○해와달이 오누이 ○호랑이와 꽃감 ○호랑이와 토끼 ○호녀와 산신령 ○장화 흥련전 ○아들을 던진 며느리 이야기 ○효성스런 호랑이	○권선징악 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사나운 호랑이 설화를 이해한다 ○어리석은 호랑이 이야기를 통해 힘센자와 의 대결에서 지혜가 필요함을 안다 ○호랑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심성을 반영했음을 안다 ○효성에 감동한 호랑이, 호랑이의 의리와 정에 대해 안다
2-1학기 (8학년)	VI. 문학과 독자 *우산장수 할아버지[보충· 심화]	○동화를 읽고 뒤에 이어질 내용을 써보자
2-2학기 (8학년)	I.감상하며 읽기 *개미와 베짚이[소단원 속 예문]	○작품의 기본 내용 파악 ○깊고 넓은 이해 하기 ○비판적인 생각 하기 ○자유로운 상상하기
	III.우리 고전의 맛과 멋 *원수이면서도 필용한 까닭 [보충· 심화]	○주인공의 행동 변화를 표로 정리하기 ○제목의 의미를 우화의 내용과 관련 지어 보기 ○글쓴이의 의도 파악하기 ○독자의 반응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I.작가와 작품 *민들레 연가 [보충· 심화] (작품속 예시)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며 글을 읽어 보자

학년 · 학기	대단원명 · 수록작품	학습 활동
2-2학기 (8학년)	II.이야기의 구조 (1)아기장수 우투리 (2)현명한 아내 만카 *알라딘과 요술 램프[읽기 전에] *원숭이와 거북이야기[보충· 심화] *바리테기 바리테기바리공주야[보충· 심화]	○내가 알고 있는 영웅이야기 발표하기 ○우투리의 영웅성에 대해 말하기 ○날개 달린 말에 숨겨진 의미 이야기하기 ○그림을 보며 내용 정리하기 ○아기장수 우투리 구조 파악하기 ○인물 분류하기 흥미 있었던 장면을 이유를 들어가며 말하기
		○만카의 문제 해결 과정 설명하기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은 자기에겐 닥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 하는지 생각하기 ○원숭이와 거북의 인물됨을 정리하기 ○도표를 보면서 이야기의 장면 설명하기 ○<토끼전>과 비교해 보기
		○주인공의 신분 변화 정리하기 ○주인공이 소원을 이루기까지 과정 파악하기 ○영웅 이야기와 비교하기 ○주변에서 바리테기와 같은 삶을 사름 찾아보기
	IV.교과서, 어떻게 공부할까? *이별편지 주머니(안데르센 이야기) [쉽터]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왜 평생 독신으로 살았을까? ○그의 작품<미운 오리 새끼>와 작가를 비교해 보자
	V.창작의 즐거움 (2)비누인형	○주인공 파악하기와 비누 인형을 만드는 이유 알기 ○작가가 되어 써보기 ○등장인물 묘사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노랫말을 바탕으로 한 편의 소설을 만들어 보자
3-1학기 (9학년)	I.시의 표현 *마음, 향기 [쉽터]	○생활 주변에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자
	II.중심내용 파악하기 *엄마무릎[쉽터]	○어린시절 어머니께 느낀 사랑을 생각해 보자
	III. 독서와 사회 *성실이라는 무기[쉽터] *고정관념[쉽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고 성실히 임했던 사실을 이야기 해보자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할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말해 보자
3-2학기 (9학년)	I.창조적인 문학체험 (3)길 잃은 태양 마차	○관련 있는 인물과 밑줄 긋기 ○그림을 따라가면서 이야기 전개 과정을 말하기 ○주인공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말하기 ○주인공이 남겼을 마지막 말을 상상하여 적어 보기
	V.글과 표현 *마술의 사과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작품의 학습은 독해를 위한 인과 관계 파악, 사건과 사건과의 파악을 통해서 사고력 신장과 창의력 개발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 풍습,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작품이 있음에 비해, 요즘 학생들의 창의력과 지식을 계발하고 흥미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우주, 자연 과학 상상 과 관련된 작품은 거의 볼 수 없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의력, 지식적 기능면에 있어서 시대성이 뒤떨어지고 다양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고정 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은 끝없는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고 경이로운 생각을 창출하게 한다.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충동은 경이로운 생각이나 호기심에서 오는 것이다. 즉 경이의 생각으로부터 책 속의 지식과 진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배우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체험하고 가까운 곳, 먼 곳, 미지의 세계를 그려 볼 수 있는 작품이 절실하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강조한 상상력 기르기에 대한 학습 내용의 요소가 많은 것도 특이한 점이다. 동화의 전문을 제시하지 않고 동화의 일부분을 읽거나 이야기로 들려주고 나서 뒷부분을 상상하여 말하게 하는 점이 특징이다.

주인공,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말하기, 처음 부분과 끝부분을 읽고 중간 부분을 상상하여 꾸며서 말하기 등의 활동으로 상상력을 기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갈래별 지도 요소(구성 파악, 성격 파악, 작품 요소간의 관계)를 보면, 정의적인 특성과 관련된 지도 내용을 체계화하고, 각 영역별 ‘실제’에서 ‘태도 습관’이라는 하위 범주로 체계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빈약하다. 문학교육이 지적인 이해보다는 ‘가치화’, ‘내면화’라는 정의적 목표를

지양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지도 내용의 계열화에 부족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학년의 경우 이야기의 줄거리와 내용 파악, 인물의 성격 파악, 이어질 이야기 상상하기, 이야기의 구성 파악, 작품 요소간의 관계 파악, 의도를 고려했다. 그러나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보고 느낀 점을 말하며, 작품 속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을 받아들여 내면화하는 가치 활용 면에서 지도 내용이 배려되지 못했다. 즉, 문학에 단련된 지식적 요소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이해, 이야기의 구조, 작품 요소간의 관계 분석 등)에 대한 이해에 치중하여, ‘문학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작품 감상을 통한 풍부한 인간성의 함양(정의적 영역)의 내용이 단위 설정에 소홀히 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의 구성체제에서 나타난 학습활동의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다. 작품을 읽는다면 반드시 학습활동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동화 작품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습활동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학생들에게 문학텍스트를 해석하는 틀로 작용한다. 문제 자체가 작품 해독의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기 전 작품을 읽을 때 느꼈던 다양한 생각은 문제를 보는 순간 얼어붙거나 사라진다.

학습활동의 문제들이 학생들 앞에 놓이게 될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감상에 변화를 겪는다. 긍정적으로는 그 해석이나 감상에 있어 기대지평의 상승효과를 가져오거나 적어도 자신의 것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감상을 유보시키거나 아예 버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학에 대한 자기 부정적 정체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중학교 국어교과서 구성 체제에서 새로운 특징의 하나인 ‘날개’ 즉 체제

의 왼편 또는 오른편에 제시된 장치는 글을 읽어 가는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안내하고 지시하거나, 자료 제공, 설명의 내용도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 학생들의 독서가 풍요로워 질 수도 있겠지만 방해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학생들의 독서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 해결 요구는 문학에 대한 해석의 강제 집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기 진단이나 자기 점검이라는 틀도 대부분 지적인 측면을 자기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7차 교육과정의 지향하는 바나 국어 문학 영역의 전제인 자유로운 감상이나 창의적인 수용이라는 측면에 위배되는 점도 없지 않다. 이러한 자기 점검의 틀은 학생들이 풍부하게 감상한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감상이라는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을 막는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감상이라는 측면을 무의식적으로 검열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학생들은 지적이고 고정된 틀에 따른 문학텍스트의 해석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진다.

학생들이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교사와 적절한 평가 교정을 통해 칭찬해 주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활동 중심의 역동적인 문학 수업이 되기 위해선 인쇄된 학습활동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교사의 구두로 된 즉각적인 발의와 학생들의 응답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2)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의 교육적 활용 가치

다음으로 앞에서 제시된 수록 양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수록 동화의 교육적 활용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치 기준은 언어적·지적인 측면과 윤리적·도덕적 측면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언어적·지적인 측면에서 본 가치 활용

문학 작품은 직접적인 지식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라는 포장지로 싸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적 작용이 없이 정서만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적인 측면이라 함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고력, 창의력, 지식적인 면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또한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소리를 정확하게 지각하거나, 변별하기, 정확하게 발음하기, 사물의 이름 낱말 뜻 익히기, 낱말 활용하기, 문장의 뜻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문장 사용하기, 자기의 생각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거나 의견을 올바르게 교환하기 등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준다.

#### ① 창작 동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영역의 내용으로 ‘창작’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학교에서도 보다 본격적으로 문학의 창작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는 이러한 소설 창작을 직접 다루고 있다.

2학년 2학기 5단원 [창작의 즐거움]에서 (2) <비누 인형>은 순수 학생의 작품으로 ‘동화’ 장르를 패러디 한 소설로, 또는 장르론의 관점에서 동화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학생이 노랫말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소설의 창작과정을 학습 활동에서 언급하지만 어린 주인공 연희의 심리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창조한다.

‘동화’ 장르의 형식적 특질을 과도하게 모방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동화 ‘장르’를 패러디 한 소설로 볼 수 있다. 흔히 동화를 ‘시적 산문’이라고 한다. 운문과 산문이라는 2대 장르를 나눌 때 동화는 산문에 속하지만, 소설과는 달리 ‘공상적·시적·상징적’인 특질이 강하다. <비누인형>은

‘동심’을 형상화한다.

간결한 문체, 다양한 의성어·의태어를 통한 리듬감의 조성, 반복과 점층 구조, 운문성이 강한 노래의 삽입 따위로 시적 언어의 특질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의 특질은 내면의 조화를 추구하는 서정(시)의 세계에 가까운 동화 세계를 지향한다.

첫째, 이 작품에는 다양한 의성어·의태어로 장면을 생생하게 제시한다.

    삐들삐들 휘어진 길들은 여기저기가 깨지고 시멘트로 덕지덕지 발라 놔서 누더기 같았고,  
    연희가 오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다. (중략)

    일찍부터 일터로 나갔다가 듬성듬성 서 있는 가로등에 붙이 켜질 즈음에야 돌아오기 때문이다. (중략) 연희는 빼거덕거리는 소리가 크게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가게 안에는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볶은 아주머니가 벽에 몸을 반쯤 기댄 채 누워 있다가 연희를 보고는 반갑게 맞았다.

의성어·의태어는 사물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아이의 사고방식에 적합한 표현 방식으로 문장 전체에 리듬감을 형성한다. 그밖에 한 문장 안에 비슷한 음운과 비슷한 구문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비누인형>은 의성어·의태어의 사용으로 리듬감을 형성 할 뿐만 아니라 장소 이동에 따라 단순한 삽화들이 반복되면서 점층의 효과를 준다.

    “두껍아 두껍아, 현 집 좋게 새 집 다오. 두껍아 두껍아,.....”

    연희는 어느 때 보다 더 신이 나서 두꺼비집을 지었다.

    이제 연희가 짓는 모래집은 비어 있는 집이 아니라 비누 인형의 집이 되었다.

    소꿉장단을 할 때도 인형은 언제나 연희와 함께였다.

    그 인형은 때론 연희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동생이 되었다.

    비누 인형은 연희의 곁을 지켜 주는 하나뿐인 친구가 된 것이다.

연희는 옆에 놓여 있는 비누 인형을 품에 꼭 안으며 말했다.

“언제까지나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어 줄 거지? 나랑 약속한 거다.”

- 대화체에 말의 생생함이 잘 나타난다. 이러한 간결한 대화체로 동심의 단순성과 순수성을 표현하는 문체로 작용한다.
- 또 별것도 아닌 것들을 소중한 놀잇감으로 간직하는 모습에서 아이다움이 한껏 묻어난다.
- <비누인형>에는 운문성이 강한 노래가 삽입되어 시적 언어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아이의 일상을 통해 해맑은 ‘동심’을 그려 보인 점에서 ‘동화’이다. 이때의 동심은 일과 놀이, 현실과 공상이 분열되지 않은 원초적 형태를 띠고 있다.

<비누 인형>은 유년기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공상이 거세된 ‘사실’의 세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놀이는 유년기 아이들에게 생활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공상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비누인형>은 말 그대로 시적·공상적인 요소가 풍부한 ‘동화’이면서 아이들의 ‘생활’을 충실히 그려낸 ‘생활동화’이다.<sup>75)</sup>

유년기 아이의 생활 범위는 대개 집 안팎이며 그들의 생활에서 가장 큰 관심은 먹을거리와 놀이다. <비누인형>은 바로 그러한 유년기 아이의 생활을

---

77) 생활동화란 아이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다룬 동화란 의미를 강조한다. 이것은 유년의 심리적 특성인 물화론적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아동문학에서 의인화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사물을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며 감정이입을 쉽게 하는 ‘전조작기’ 단계의 아이들 심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년 아동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생활동화는 공상적·시적인 동화의 본질을 내장한다.

정확히 파악하고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었다. 동화의 주된 글감이 ‘놀이, 소꿉놀이, 먹는 것, 장난감, 자연’인 것처럼 이 작품은 동심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그린 동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누인형>은 산문정신을 지향하는 소설과는 달리 시적 전망을 보이는 동화에 가까운 세계이다. 물론 어떤 작품을 고정된 한 장르에 귀속시킬 수만은 없다. 그 경계에 놓인 작품, 즉 다 층위의 작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누인형>은 소설 장르에 국한시켜 논의할 때 한계로 지적 될 수 있는 부분이 동화란 장르로 응시 할 때 오히려 성과가 될 수 있다.

창작 교육에 있어서 장르 이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또한 본격적인 소설을 쓰기에 앞서 유년 시절의 동심이 나타나 있는 ‘동화’를 통한 글쓰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7차 문학 교육과정에서는 인접 예술 영역과의 상호성을 강조하였다. 문학이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건축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접 예술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의 관점에서 인접 예술을 감상하거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문학을 다른 예술로 또는 다른 예술을 문학으로 변환하며, 사회 현상을 문학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문학 교육을 강조하였다. 문학이 음성과 문자 텍스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시각, 청각 매체를 비롯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컴퓨터, 만화, 게임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문학교육에서도 디지털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다양하게 탐색 되어온 미디어 텍스트의 국어 교육적 수용에 관한 논의를

동화와 애니메이션 '보기(viewing)', 멀티리터러시<sup>76)</sup>교육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책 '읽기(reading)' 행위를 책 '보기(viewing)'와 관련하여 수용자가 책을 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미 작용에 문자언어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 이미지에 주목함을 의미한다. 즉, 책 '보기' 과정에서 이미 문자 언어 '읽기'와 시각적 기호 '보기'라는 복합적 리터러시 능력, 멀티리터러시가 작용한다는 것인데, 애니메이션 '보기'의 경우에는 문자언어 '읽기'와 시각 이미지 '보기'에 덧붙여 음성 언어 '듣기'와 각 장면을 시각적, 시간적으로 연결하는데 관련된 영상 리터러시(cineliteracy)가 추가로 개입된다.<sup>77)</sup> 이러한 복합적 리터러시 능력의 국어교육적 수용이 갖는 의미를 동화책과 그 변용 텍스트로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1) 강아지 똥(중학교 1-1학기(7학년) I. 문학의 즐거움 [보충·심화])

- 저자 : 권정생(그림자가 : 정승각)

- 언어 : 한국어

- 내용 :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똥이 주변의 온갖 사물들과 동물들에게 더럽다는 편견을 듣다가 민들레를 만나 스스로 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내게 된다는 이야기.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와 쓸모가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 비고 : 이야기가 먼저 씌어지고 그림은 나중에 그려졌다. 2003년 클레이메이션<sup>78)</sup>이 제작되어 미국 시장에 진출(영어 제목 Doggy poo)했고, 2003년

---

76) 문자나 음성뿐만 아니라 시각,청각, 체스처와 같은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미디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디자인'능력을 뜻하는 새로운 개념의 리터러시이다

77) 정현선, 「동화와 애니메이션 '보기(viewing)''를 중심으로 한 멀티리터러시의 국어교육적 고찰」, 『국어교육』 114호,2004,113쪽

뉴욕 빅 애플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관객상 및 일본 도쿄 국제 만화 영화제 파일럿 부분 최우수작품상 등 국내외 영화 페스티벌에서 잇달아 수상하며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보여 주기에 앞서 동화책에 나타난 문자 텍스트만을 따로 떼 내어 미리 인쇄하여 유인물의 형태로 나누어 준 후 ‘읽도록’ 하고, 이야기를 읽은 후에는 그 주제, 느낀점, 인물의 성격, 주인공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 주인공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상상한 결과에 질문한 후 인상 깊은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한다.

그런 후에 동화책을 실물 화상기를 이용해 직접 보여주고, 책을 본 후 가장 마음에 남은 그림은 어떤 것인지, 책으로 보았을 때와 학생들이 문자 언어를 통해 상상하기만 했을 때와 비교하면 어떤 점이 같거나 달라졌는지, 그림책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적어 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동화책의 변용 텍스트인 애니메이션을 비디오로 보여 준 후, 가장 인상적이 장면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 그림책과 느낌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점인지 그림책과 애니메이션 중 이야기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다고 보는지,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림책과 애니메이션 중 더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에 대해 적어 보게 한 후,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다.

이런 활동은 전통적인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에 속하는 문자 언어 ‘읽기’와 동화책이라는 미디어 ‘보기’ 그리고 애니메이션 ‘보기’라는 동화적 행위에 있

---

78) 클레이메이션Clay Animation의 약자로 점토로 캐릭터를 만들어 세트 배경으로 한 장면씩 찍어나가는 스톱 모션 제작 기법을 말한다.

어 창작 동화를 각각의 미디어 수용자인 학생들이 어떤 리터러시 능력을 발휘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작품에 적용시킬 수 있다<sup>79)</sup>.

그동안 애니메이션은 문자나 음성언어로 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서 활용하는 사례가 더 많았지만 이제는 미디어의 영상 언어와 소통의 특성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고유의 문화 텍스트임을 인지해야 한다.

## ② 전래 동화

옛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뜻하며, 이야기판에서 생성, 전달, 전승되는 언어예술이다.<sup>80)</sup> 이처럼 허구적 이야기, 즉 설화를 바탕으로 한 전래동화는 듣고 말하는 행위로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학 행위이면서 동시에 교육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전래 동화는 수용자의 다양한 해석과 전승자의 개성적 재연이 가능한 갈래라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가 높다.

7차 교육 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는 2. [문학의 아름다움]이라는 대단원 아래 (4) 옛이야기라는 소단원으로 세 편의 전래동화(신화, 전설, 민담)가 실려 있다. 전래동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고,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갈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해석을 강요당한다든지, 고정된 해석의 틀에 갇힌 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배제 당해 왔다.

---

79) <TV동화 행복한 세상>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파스텔톤의 애니메이션과 정감 있는 목소리를 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작품당, 5분, KBS제작, 2002~현재까지, 전래 동화 <은비 깨비의 옛날 옛적에>, 20분씩, 13편, KBS제작, 1991년

80) 김동학, 『한국 구비 문학의 이해』, 월인, 2000, 9쪽

<동명왕 신화>는 건국신화로서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시련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우연한 사건이 계속 개입되는 구성을 띠고 있다. 주인공의 삶이 하강과 상승을 반복해 가며 전개되어 가는 탓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영웅적 주인공에게 몰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영웅의 일생’이라는 신화의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

<지네장터>는 전설로서 교훈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며, 단순한 구성이어서 기억하기가 매우 쉽다. 순이라는 여성 주인공이 두꺼비의 보은으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극복하는 이야기이다. 특정한 증거물의 제시를 통해 이야기에 신뢰도를 부여함으로써 교훈적 주제의 전달을 강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우정의 길>은 민담으로서 높은 차원의 신의가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내용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제시하는 이야기이다. 보편적 인물과 주제를 통해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줌으로써 세상살이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제시된 세 편의 이야기에 대한 교육은 보편적 통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래동화의 읽기는 텍스트의 당대적 의미와 현재적 가치 사이의 거리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문학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과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에 대해 보다 진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 편의 전래동화를 다시 살펴보자.

<동명왕 신화>는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 건국신화이다. 여기서 문헌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남성 권력의 사회적 제도화와 공식화를 공공의 담론으로 조직하고 있는 이야기’임을 말해 준다. 남성 권력의 사회적

공식화란 달리 말하면 남성·여성이라는 성적·사회적 차별의 공식화이고 체계화이다.<sup>81)</sup> 즉 특정한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전승되면서 신화 속의 어떤 이야기는 배제되거나 위축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는 확대되거나 새로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다. 신화가 인간이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건국신화 속의 여성은 언제나 협력과 인내의 보조자로서 제시되고, 남성은 강인함과 뛰어난 능력으로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영웅적 주인공으로 제시된다. <동명왕 신화> 속의 여성인 ‘유화’ 역시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참고 견디는 인내의 화신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바리데기>와 같은 무속신화의 여주인공과 유사하지만 보조자의 역할에 머문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구비설화의 영역에서는 성적 차별의 체계가 문헌설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얽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문헌에 기록된 설화 속에는 남성 지배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은연중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사실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 열전의 <온달>과 <도미 이야기>는 남편을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야기는 그 아내들인 평강 공주와 도미처가 이야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 인물들은 매우 지혜롭고 신의 있으며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져 있다. 남성의 시각으로 보자면 ‘평강’은 남편 만들기의 상징으로서, ‘도미처’는 정절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서 대표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남성의 시각을 한 꺼풀 걷어내고 보면 두 여성 인물의 행동은 맹목적인 희생이나 강요된 윤리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권(父權)과 왕권(王權)이라는 절대적 권위에 굴종하지 않고 주체적 자아의 판단에 입각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래동화 속

---

81)조현설, 『구비문학과 성』, 박이정, 2000

의 남/녀 관계는 가부장적 남성 사회의 문화적 이상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거슬러 읽어야만 그 이야기의 숨겨진 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지네장터>는 표면적으로는 효(孝)의 문제를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야기이다.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위한 딸의 희생이 이야기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심청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효행 못지않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동물에 대한 인간의 선행과 인간에 대한 동물의 보은이 이야기의 한 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개의 동물 보은담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이 전설을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교훈적 의미만으로 읽는 것은 왠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옛 이야기에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것들이 많으며, 그것은 동물의 복수담 아니면 동물의 보은 담 둘 중의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들 보면 대체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즉 동물에 대해 공존과 화해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행복한 결말을 얻는 반면, 동물에 대해 적대와 대립의 포즈를 취하는 사람은 비극적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화해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주의적 사고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효도를 위한 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전통시대의 윤리는 이제 더 이상 교육적 의의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눈과 자식의 목숨을 맞바꾼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설화적 감동을 주지 못한다.

학생들은 어쩌면 그러한 시대적 윤리에 몸서리를 칠지도 모른다. 이는 부모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전통시대의 효 관념이 더 이상 유효성을 가지

지 못함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를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우정의 길>은 친구간의 진정한 우정을 내세운 이야기이다. 우정은 인간과 인간의 유대를 지탱하는 소중한 윤리라는 점에서 고금에 있어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강조되는 전통적 윤리는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민담을 보면 먼저 성공한 김은 다른 친구 박을 처음부터 도와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결국엔 물질적 후원을 통해 그의 성공을 돕는다. 나약하고 의존적인 박의 성향을 바로 잡으려는 김의 노력은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결말도 해피엔딩이다. 독자들은 김이 왜 친구 박을 결국엔 도와주는지, 박은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늘 김에게 의존하는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의 관계를 좀처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서 작품에 긴장 관계를 부여하고 현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민담의 전반부에 해당한다.

후반부는 현실성도 다소 약하다. 과거에는 후반부의 행복한 결말에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면, 현재는 전반부의 현실적 성격에 독자들이 주목하기 쉽다. 즉 온정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주체적 삶에 대한 가치 부여가 그것이다. 이 역시 작품의 중심을 이동시켜 읽는 거슬러 읽기를 통한 읽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력을 기르는 동화 읽기의 목적은 다양한 관점을 통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는 실천적인 인간상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 (2)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 본 가치 활용

동화 문학의 교육적 가치와 기능은 궁극적으로 사회성, 역사성을 띤 윤리

적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대 사회가 산업 사회화됨에 따라 파생되는 많은 부정적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동화 문학이 지닌 교육적 가치 즉, 윤리적 문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이러한 동화를 통한 윤리성과 도덕성의 교육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집단)사회를 형성하여 살아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며 그 사회 속에서 생활해 나가는 학생이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보다 참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82)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어떠한 윤리적·도덕적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는지 개인적·사회적·국가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① 개인의 도덕성 함양

개인적 측면에서는 과욕, 경계, 보은, 지혜, 효, 형제간의 우애 등에 대해서 교과서에 많이 수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가. 과욕·경계

과욕형은 재물, 권세, 명예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 동화에는 주로 재물형이 많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허영심과 자만에서 오는 파멸이 보여 지는 경우도 있다

마침내 가엾은 파에톤은 아득히 높은 하늘에서 대지를, 아득히 먼 하계(下界)에 펼쳐진 대지를 보고 말았다.

대지를 보는 순간, 파에톤은 자기가 얼마나 높은 곳을 달리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무릎은 갑자기 엄습한 공포에 견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강렬한 태양 마차의 빛줄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

82) 최금자, 「동화를 통한 인성 교육 방법 연구」,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2003, 22쪽

그제야 파에톤은 천마를 탄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친아버지를 찾아 낸 것을 후회했다. 스텝스 강에 맹세한 친아버지를 원망했다. 그 친아버지에게서 소원 성취의 약속을 받아 낸 것 자체를 후회했다. 태양 마차를 몰겠다고 우긴 것을 후회했다. 그는 메로프스의 양아들로 그저 평범하게 살아야 했다고 생각했다.

- <길 잃은 태양마차>- 중에서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허영심과 자만심은 오히려 자기를 파멸 시킨다는 이야기를 통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나. 보은

불교의 보은 사상과 유교의 실천 도덕의 영향으로 보은의 주제를 강조한 작품이 교재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작품은 착한 일을 한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자신이 전에 도와준 대상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즈음 학생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아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작은 일에도 위협을 무릅쓰고 남을 돕는, 동물들의 배려정신과 또 반드시 그 은혜를 갚는 보은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작품이 적지 않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처녀의 시체를 거두려고 당집 문을 열었다.

흉측한 지네가 바닥에 처참한 물골 죽어 있었고,

흔절하여 쓰러진 처녀 옆에는 두꺼비가 죽어 있었다.

정신을 차린 순이가 간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두꺼비는 그 동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순이를 뒤따라와서 독을 뱉어 지네를 죽이고

기운이 다하여 자기도 죽었던 것이.

-<지네 장터>중에서-

이처럼 하찮은 동물을 보은의 주제로 설정하여 보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대상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가치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님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지도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다. 지혜

교과서의 동화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작품에서도 지혜와 기지를 주제로 한 작품이 많으며 특히 전래 동화에는 기지형 이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작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 하자 토끼는 꾀를 내어 호랑이를 연못가로 데리고 갔다.

“호랑이 아저씨, 이 연못 속에 한참 꼬리를 담가 보세요.

고기들이 주렁주렁 매달린답니다.”

“오, 그래?”

호랑이는 얼른 꼬리를 연못 속에 담갔다.

-<호랑이와 토끼>중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기지가 드러나 있다. 학생들은 위와 같은 작품을 통하여 침착하게 극복해 온 선조들의 기지를 인지하게 될 것이며, 지혜를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응용도 해 볼 것이다.

여우와 호랑이는 한동안 숲 속을 돌아다녔다. 그 사이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여우를 보고 도망을 갔다. 호랑이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아주 사납게 생긴 곰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곰이 슬슬 눈치를 보며 여우를 피해 달아나지 않는가?  
호랑이는 결국 여우가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랑이는 미처 여우를 몰라본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다른 먹이를 찾아 떠났다.  
-<호랑이의 권세를 믿고>-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고사 성어의 바탕이 된 우화로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려 제 권위를 누린다는 뜻이다. 즉 아무 실력도 없으면서 배경을 믿고 세도를 부리는 사람을 경계하자는 내용이다.

배의 손님들은 다섯 무리로 나뉘어 행동했다.  
첫 번째 무리는 배안에 그냥 남아 있기로 했다.  
두 번째 무리는 서둘러 배에서 내렸다.  
그들은 섬에 내려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며, 맛있는 과일들을 따 먹고는 다시 힘을 얻어 곧 바로 배에 올랐다.  
세 번째 무리도 배에서 내렸다.  
그들은 섬에 정신이 팔려 시간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가 스르르 바람이 일자, 배가 떠날까 봐 놀란 나머지 허둥지둥 달려오느라 야단이였다.  
그 때문에 그들은 모자나 벗어 놓은 옷을 잃기도 하고,  
배 안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었다.  
네 번째 무리는 너무 많이 먹고, 지나치게 들떠 있어서 배가 떠나는 고동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섬에 갇혀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 먹히거나,  
독이 든 과일들을 따 먹다가 모두 죽고 말았다.

-<섬에 표류한 사람들>:탈무드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깨우쳐 준다. 걱정에 싸여 배에서 내리지도 못한 사람, 너무 즐거워하다가

배를 놓친 사람은 무언가를 잃었다. 어차피 모두 내려 잠깐 쉬기로 했으니 배에 남아 있는 다고 더 빨리 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배가 떠날까 걱정이 되어 배에서 내리지 못한 사람은 쉬면서 아름다운 섬의 풍경을 즐길 기회를 놓친 것이다.

한편, 실컷 놀다가 배를 놓친 사람은 영원히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인생을 망친 셈이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가장 실속 있는 사람은 섬에서 곧 돌아온 둘째 번 부류의 사람들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몰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즉, 너무 일에만 열매이는 것도, 너무 즐거움과 쾌락에만 열매이는 것도 좋지 않다. 목표를 잊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휴식도 취할 줄 아는 균형 있는 생활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 라. 효

효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 여러 나라의 치국 이념인 유교의 중요한 하나의 덕목으로서 또한 일상생활의 규범으로서 국민들의 가치관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쳐 왔다.

효는 부모의 자애에 대한 보은의 정신으로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즉 효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이다. 요컨대 자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효를 백가지 행실의 근원이라 하여 사람의 됨됨이를 부모에 대한 효성 여하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sup>83)</sup>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 사랑과 마음으로 공경하는 효는 인간 존엄성과 경애 정신의 바탕이 되며 인간 교육의 본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83) 손인수, 『한국인의 가치관』, 문음사, 1988, 126-130쪽

이러한 효의 정신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동화가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다. 또한 효자를 기리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불효자를 효자로 개심 시키는 작품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산중에서 그럭저럭 살았나이다. 호강호강 금지옥엽 여섯 언니 어디 두고  
바리공주 천덕꾸러기, 이 버린 자식을 찾나이까?  
지나간 일은 돌아보지 않고 제가 가겠나이다.  
서천 서역의 삼신산에 불사약이며 약수며 제가 구하러 가겠나이다.”  
“뼈를 받고 살을 받고 혼을 받은 뱃속 열 달, 복중 은혜 감격하여 머나먼  
저 삼신산에 보은하러 가겠나이다.  
제발제발 바라노니 제가 올 때까지 살아 계시소서  
이만 갈 길이 바빠 하직하나이다.”

-<바리데기 공주>중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효를 실천하는 내용이어서 현대적 사고에 있어서 비판의 일면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소재와 구성은 다분히 신화적이고 무속적인 설화성이 있어서 현대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살신성효를 결심한 바리데기의 효심은 초인도적이며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효의 극치로 부모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 윤리성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인성교육 지도에 있어서 바리데기 효의 행위를 비판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부모를 섬기는 정성을 중심으로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 마. 형제간의 우애

핵가족 시대로 한 가정에 한 자녀 내지 두 자녀 이상은 극히 드물어 형제 끼리 어떻게 지내야 하며 그 따뜻한 정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잊고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형제간의 우애를 다룬 작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장사를 치른 세 아들은 한 나리에 모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를 의논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각자 헤어져서 자기 분수껏 살기로 했다.

(중략)세 형제는 약속한 날 다시 모였다. 모두 큰 부자가 된 것을 알자,

셋은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물건이 보잘 없는 것 같았지만,

이처럼 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했다.

-<아버지의 유물>중에서-

형제간의 우애가 잘 나타나 있다. 위의 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형제간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가족의 애정, 나아가 따뜻한 이웃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의 도덕성 함양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의 동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사회생활의 도덕성 함양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 ② 사회생활의 도덕성 함양

사회적 측면에서 도덕적 가치 활용의 구체적 양상은 정직, 희생, 봉사, 공동체 의식, 근면 성실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정직

정직은 올바른 인간성을 함양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예로부터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중시해 왔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힘에 눌려 억압적인 생활을 해 온 탓인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면이 많다. 그러므로 정직함은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 필요한 덕목이다.

오른쪽 길은 사병이 달리는 길, 왼쪽 길은 장교가 달리는 길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쌍갈랫 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장교가 달리는 길이 더 짧거나 편하겠지.’

‘보는 사람도 없는데 편한 길로 달리까’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사병이 달리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저 버릴 수 없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성실이라는 무기>중에서-

이기적으로 꾀를 부려야 남들보다 앞서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병사는 외곺으로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정직의 가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작품을 읽고 학생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 나. 희생 · 봉사

희생, 봉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우산이 필요하신 분은 그냥 가져 가세요. 그리고 비가 그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중략)

수백 개의 우산을 손질해서 가게 앞에 내 놓고 누구든지 우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우산 장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늘 함박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우산 장수 할아버지>중에서-

할아버지 자신의 안락함이나 행복보다는 이타정신과 희생·봉사 정신이 잘 나타나고 있다.

#### 다. 공동체 의식

올바른 생활 태도와 습관을 갖도록 하고 협동성과 자주성, 책임감을 기르도록 하는 사회 생활적인 면에서의 동화 가치 활용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따지고 보면, 고양이가 공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야.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고양이의 공도 없어질 것일세,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커다란 해를 끼치지 않고, 또 누추하지만 그럭저럭 살아 갈 수 있는 것은 모두 고양이의 덕이 아닐까? 고양이가 죽으면 우리도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죽고 말겠지.” 모여 있던 쥐들은 늙은 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중략) 얼마 뒤, 고양이가 개한테 물려 죽고 말았다.

그러자 늙은 쥐는 매우 슬퍼하였다. 쥐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우리의 원수인 고양이가 죽었는데, 왜 슬퍼하는 거요?”

그러자 늙은 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들이 어찌 내 뜻을 알겠느냐? 우리는 성질이 본디 탐욕스러우니 머지않아 큰 화가 들이닥칠 것이야. 고양이가 없어 졌으니, 우리는 마음 놓고 담벼락에 구멍을 내고, 책을 갉아먹고, 의복을 더럽히고, 음식을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에까지 손을 대겠지. 우리들은 고양이 때문에 두려움을 알아 함부로 나다니거나 도둑질을 못 했어. 그런데 고양이가 죽었으니 앞으로 화가 닥칠 것이 분명해.”

그러고는 자기 가족을 이끌고 깊은 산 속으로 가버렸다.

쥐들은 그런 늑은 쥐의 행동을 비웃었다.

(중략)마침내 집주인은 쥐들의 소행을 참다못해 집안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결국 쥐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고, 다만 산으로 피신한 늑은 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원수이면서도 필요한 까닭>중에서-

이 이야기는 제 아무리 원수 같은 존재라도 무턱대고 미워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깊게 따져 보아야 한다는 삶의 지혜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이라 할지라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살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타인을 위하여 이타적인 생각에 바탕을 둔 공동체 의식과 협동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가 발전되고 국가가 발전된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 라. 근면 · 성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소중한 것이 근면 성실이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하나에 열까지 부모가 다 해결해 주므로 한없이 게으른 편이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근면 · 성실하게 노력하는 태도를 길러줘야 한다.

“이제 알았나? 갈림길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았던 성실함이 바로 자네의 무기였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심을 지킨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꼴찌가 아니었습니다.

-<성실이라는 무기>-

위의 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근면 · 성실이 먼 곳이 아닌 가장 가까운 자신들의 주변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근면과 성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

장 먼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다. 모든 것이 현대화, 과학화되어 사람들의 생활은 주로 리모콘 시대에 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성실한 사람, 사 랍다운 사람의 강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 IV. 동화의 문학 교육적 의의

### 1. 미적 정서의 함양과 상상력 제고

문학 교육이란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작가의 사상이 반영된 작중 인물의 감정이나 행동으로 주제를 전달함으로써 인간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문학 교육은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적 학습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교재를 문학적 교육의 가치와 기능에 따라 분석해 보고, 문학 교육의 본래 교육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적절한가를 살펴 볼 것이다.

#### 1)미적 정서의 함양

어떤 자극에 대하여 동요되고 흥분될 때 경험하는 심리 상태나 감동을 외적 자극이나 내적 상념(요구·심상·사고 등)에 관련되어 느껴지는 쾌·불쾌의 차원을 감정이라 한다면 감정의 혼합된 상태를 정서라 할 수 있다.<sup>84)</sup> 문학에 있어서의 정서란 보통의 경우 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사랑과 그리움, 아름다움에 의한 찬탄, 동경과 관조의 기쁨, 상상 세계의 구현 등을 의미한다.<sup>85)</sup>그러므로 독자의 정서적 반응 역시 정서의 범주가 다양한 만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편의 동화를 읽고 독자는 고요함, 평화로움, 아늑함을 느낄 수 있고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한 감탄과 존경, 혹은 동정과 연민을 느낄 수도 있다.

84) 대한교직과 교재 편찬위원회, 『아동 교육 심리』, 교육출판사, 1988, 165쪽

85) 강유정, 「아동 문학의 교육적 기능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28쪽

동화가 지닌 풍부한 정서로 인하여 학생들은 정서를 순환하게 되며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게 된다.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잘 나타내어 학생들에게 정서적 감동을 주는 작품의 예를 들어 본다.

### (1) 사랑과 그리움-인간애, 동물애

사랑과 그리움은 동화 문학뿐만 아니라 인류 문학의 영원한 테마이다. 그러나 동화 문학에 있어서의 사랑은 사랑의 다양한 범주 중 특히 모성애와 같은 인간애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베개는 엄마 무릎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 무릎을 베개삼아 누워 있다가 잠이 들면,  
꿈은 마치 풀밭 위를 날아가는 나비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늑한 잠 속으로 들려 오는 소라고동 소리 같은 것,  
간간이 코끝을 스치며 지나가는 풀 향기 같은 것,  
따사로운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엄마 무릎에는 있었습니다.  
“그만 자. 그만 자.” 머릿결을 쓰다듬는 나뭇잎의 목소리에 잠이 깨면,  
누나가 소리내어 읽는 동화책과 대청마루로 흘러 온 햇빛이 두 눈을 간지럽혀 주던 오후,  
시간은 넉넉했고, 세상은 정지한 듯 한가롭기만 했습니다.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이 엄마 무릎을 베개삼던 어린시절.  
엄마는 이 세상 바로 들으라고 귀이개로 조심조심 귀지를 파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엄마의 손길과 함께 내 작은 귓속으로 구름이 지나가는 소리,  
자꾸만 잠결로 끌고 가는 바람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은 내 앞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무릎을 베고 있으면 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언덕을 베고 누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릎> 중에서-

엄마와 자식간의 애뜻한 사랑과 그리움이 선명히 표출되어 있다. 작가의 따뜻한 시선, 포근함 등의 정서적 반응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라는

미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 보는 법이 없다. (중략) 만약

어른들에게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십 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아, 참 좋은 집이구나!”라고 소리친다. -<어린 왕자>중에서-

어린 왕자의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 보단 진실한 우정과 사랑, 자기 주변의 사물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중략)정신을 차린 순이가 간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두꺼비는 그동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순이를 뒤따라 와서 독을 뱉어 지네를 죽이고

기운이 다하여 자기도 죽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훗날, 사람들이 당집이 이 장터를 ‘지네장터’라고 부르게 되었다.

- < 지 네 장 터 > 중 에 서 -

이 동화는 은혜를 갚은 보은(報恩)의 모티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통해 독자는 두꺼비 같은 미물(微物)도 인간과 똑같은 생각의 기능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정서적 반응으로서 동물을 애호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 (2) 자아 존중감 · 자아 인식

(중략) 흙덩이는 저도 모르게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강아지 똥아, 난 이제 죽는다.

부디 너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나같이 더러운 게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니?”

“아니야, 하느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엔가 귀하게 쓰일 거야.”

(중략)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햇노랗게 햇빛을 받고 별처럼 반짝이었습니다.

향긋한 향기 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똥의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강아지 똥> 중에서-

아무데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비관하던 강아지 똥은 민들레의 거름으로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학생들은 세상에 태어난 이상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는 자아 존중의 인식과 자존감의 정서를 갖게 된다.

### (3) 꿈 · 희망 · 기쁨

키다리 아저씨!

전 이름을 바꿨어요. 학적부에는 여전히 '지루서'이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주디'로 통해요.

난생 처음 갖게 되는 애칭을 제 스스로 지어야 되다니 너무 따분하군요.

하지만, '주디'란 이름은 순전히 혼자서 지어 낸 건 아니에요

퍼킨스가 혀가 잘 안 돌아갈 때 저를 주디라고 불렀거든요.

(중략) 저는 옛날부터 이 이름이 싫어서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디라면 괜찮아요. 그리 썩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웬지 저와는 거리가 먼 소녀의 이름 같지 않나요? 푸른 눈동자의 귀여운 아가씨,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고생을 모르고 즐겁게 살아가는 아가씨.....

-<키다리 아저씨>중에서-

주디 애보트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외롭고 고생스런 처지에 있지만,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고생을 모르고 즐겁게 살아가는 아가씨를 동경하며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런 정서야 말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거리를 걷다가 과일 가게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노오란 유자가 햇볕 속에서 먹을 감고 있는 듯이 보였다.

유자는 그대로 먹는 과일이라기보다는 향기를 주는 열매이다.

가격을 물으니 의외로 값이 비싸다. 한 개를 사서 호주머니에 넣고 걸었다.

간혹 손을 넣어 만지다가 손을 빼내어 코에 대어 보면,

유자 향기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다.

전철을 탔더니, 옆에 선 학생들이 "너, 무엇을 발랐니?" 하면서

서로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코를 킁킁거리는 것이 몰래 재미가 있었다.  
내려야 할 역에 전철이 달는 순간, 나는 얼른 유자를 꺼내어  
곁에서 학생에게 건네주었다.  
“가져, 향기가 참 좋아.”  
이렇게 말하고 내리니 학생들이 “와-.”하고 환호성을 떠뜨렸다.  
적은 돈으로 큰 기쁨을 얻는 날이었다.            -<향기>중에서-

각박하고 삭막한 현실 속에서 소박하고 훈훈한 정서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다. 받는 것에만 익숙한 요즈음 학생들에게 나눔으로써 기쁨을 얻는,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도 함께 전하고 있다. 비록 유자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향기를 말하려는 것임을 알게 된다.

#### (4) 깨달음

6살짜리 어린 아이가 목욕탕에 앉아 대야에 발을 담그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아빠에게 갔습니다.  
“아빠, 내가 물을 떠 왔어. 이걸로 세수해.”  
“영호야, 발 담근 물로는 세수하는 거 아냐.”  
“왜?”  
“발 담근 물은 더러우니까 그렇지.”  
“아빠, 그럼 이 물은 더러운 거야?”  
“응, 더러운 물이야. 발을 담근 물이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야에 있던 물을 바닥에 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이가 아빠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  
아빠는 여러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탕 속에 앉아서  
그 물로 얼굴의 땀을 씻어 내고 있었습니다.  
인식이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인식 자체가 반드시 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버스나 배로는 철로 위를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철로를 깔아 놓으면 달릴 수 있는 건 기차뿐입니다.

-<고정관념>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린 아이의 눈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이야기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깨달음의 정서는 삶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 (5) 이해와 화해

내가 위그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아내의 두 눈은 젖어 있었다.  
아내는 걸상에서 내려와 나의 뺨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그 박하사탕의 향기가 잊혀지지 않아.”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마지막 여항을 닦으면서, 어깨 너머에 서들려 오는 위그든 씨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이해의 선물>중에서-

어린 시절 사탕 가게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이해라는 선물을 어른이 되어 똑같이 실천한 주인공과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아내의 행동을 통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간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동화가 함축하고 있는 풍부한 정서로 인하여 인간적인 사랑과 우정, 주변의 사물에 대한 애정 등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정서적 감동을 통하여 더욱 폭넓은 인간성이 육성될 것이다.

## 2) 상상력의 제고

동화 문학에 있어서 상상(想像)은 흔히 일종의 환상과 공상에 가까운 세계를 구현한다. 더욱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상상은 언제나 그들의 삶과 결부되기 때문에 역동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상은 현실에 피해 앓았다가 오는 벤치가 아니라 오히려 상상적 환상을 가지고 일상의 현실을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하며 현실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새롭게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상상은 순수한 기쁨을 만들어 내며 인간을 현실에서 해방시켜 자유세계로 안내해 주는 것이다. 즉 폐쇄된 현실과 세계 속에서도 자아와 우주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행복한 순간을 얻게 되는 것이 상상력의 힘인 것이다. 그러므로 동화 문학에 구현되는 상상 세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략)그러다 연희는 결심이나 한 듯 비누 인형을 반쯤 열린 창틀 위에  
곱게 뉘면서 이야기했다.

“나, 학교 다녀올게. 심심하지 않게 여기서 바깥 구경이나 해.”

엄마는 학교 교문이 바라다 보이는 큰길까지 연희를 내려다주었다.

연희는 혼자 남게 되자, 비누 인형이 더 보고 싶어졌다.

‘아빠도, 비누 인형도 마음 속으로 생각하면 늘 곁에 있는 거야.’

마치 어딘가에서 아빠와 비누 인형이 연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중략)연희는 방문을 열고 비에 젖은 폼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비누 인형을 놓아 둔 창틀을 보았다.

그러나 어디로 사라졌는지 비누 인형은 온데 간데 없고 방안 가득

비눗방울만 날리고 있었다. 연희는 멍하니 방 한 가운데 서 있었다.

비누 인형과 소꿉장난하던 일, 흥 놀이하던 일, 노을을 바라보며 언제까지나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그 날이 꿈처럼 느껴졌다.

바람을 타고 흩날리던 비눗방울은 작은 창문을 넘어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한  
먼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다.                   <비누 인형> 중에서-

이 동화는 외로움을 혼자 달래며 놀아야 했던 어린 소녀의 마음을 상상 세계를 통해 아름답게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비누 인형 없이도 외로움을 견딜 수 있다는 주인공의 마음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비는 사흘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강아지 똥은 온몸에 비를 맞아 자디잘게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땅 속으로 모두 스며들어가 민들레의 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즐거를 타고 올라와 꽃봉오리를 맺었습니다.       -<강아지 똥>중에서-

이 동화는 보람 있는 일을 찾아 힘들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강아지 똥을 통해 학생들에게 누구나 자기에게 보람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강아지 똥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학생들의 상상력을 동원시켜 전개하고 있다.

판타지 동화의 특징인 상상력은 학생들에게 무한한 꿈을 주고, 학생들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다.

## 2. 다양한 인물상의 제시와 인간애 함양

동화 문학 역시 인간학이기에 언제나 각 시대마다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창출된다. 갈래별로 이야기 구조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전래 동화

신화나 설화의 내용은 주로 탄생의 사건과 가족 간의 갈등, 사회적 성숙, 결혼,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활이란 비슷한 시작과 끝으

로 연속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sup>86)</sup>은 동화의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신화나 설화가 모두 똑같은 통과의식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의 모든 동화 종류는 기본적으로 작품의 내용이 심리적, 정신적 종속 관계에서 분리되어 변화의 과정을 거쳐 보다 성숙한 자아와 자신을 실현하는 심리적인 통과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동화는 선악의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닌 등장인물에 의하여 야기되는 갈등과 갈등해소의 극적인 구조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동일시 대상이 되는 매력적인 선한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여 심리적 만족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

#### (1) 현세 구복적 인간상과 인자(仁者)의 품성

먼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를 살펴보자.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술된 단군신화 텍스트는 다음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단락: 환인(桓因)의 서자(庶子),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기를 바라던 중, 환인이 이를 알고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뜻을 펼칠만한 삼위태백

---

86) 통과례(Initiation)의 과정을 Gennp는 격리의식, 변화의식, 통합의식으로 나누었다. 전래 동화(전형적인 통과례)의 경우 탄생과 갈등, 심각한 고민과 불가사의한 고난의 체험, 인과응보의 귀결과 소원성취의 과정을 거치다고 보았으며, 창작 동화(심리적 통과례)의 경우 심리적, 정신적 종속 관계에서 분리되고, 환경, 타인과의 갈등, 자신과의 내적 갈등을 통한 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성숙한 자아와 자신을 실현시키는 과정으로 보았다. (정선희, 「한국 아동 문학의 정체성과 전망」, 『아동 문학의 특성과 전망』, 성신여대인문과학 연구소, 2003, 37쪽, 재인용

(三危太伯)에 내려가라고 지시함

②단락: 환웅(桓雄)이 부하 3천명을 거느리고 신단수(神檀樹)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고,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명하여 인간사 360여가지를 주관하며 교화함

③단락: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기를 원하며, 환웅천왕의 지시대로 굴에서 쉼과 마늘만 먹고 지내다가, 범은 참지 못 해 그 시험에 떨어지고 곰은 통과하여 삼칠 일만에 여자가 됨

④단락: 웅녀(熊女)가 신단수(神檀樹) 아래서 잉태를 빌었더니 환웅이 사람의 몸으로 변신하여 혼인하고 잉태 시켜 아들을 낳으며 이를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호칭함

여기서 환웅은 현세 구복적 신관(神觀)이 나타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선조들이 보는 하늘님은 바로 인간을 이롭게 하기를 바라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옛 이야기<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도 호랑이에게 쫓긴 남매가 막바지에 하느님께 빌어 구원의 빛줄을 얻었다.

또한 <단군신화>에서는 끈기와 참을성과 순박함을 통한 인자(仁者)야말로 이상적인 인간상임을 말하고 있다.

인간되기를 소원하는 곰과 범에게 내건 시험이 외적인 힘을 과시하는 투쟁과 용맹보다는 내적인 힘을 드러내는 인내를 더 많이 요구했다는 점이다. 그 시험은 결코 남과 힘 겨루는 투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와 싸우는 인내력의 내기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용맹의 화신인 범보다 인내의 화신인 곰을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 (2) 무속의 여신-바리데기 바리데기 바리 공주<sup>87)</sup>

문학의 주인공을 가리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나 설화 등을 비롯한 고대 서사물의 주인공들이 대개의 경우, 범상한 사람보다 뛰어나고 영웅적인 자질을 지녔던 관습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돌적이고 강하고 용감하고 계약에 능한, 따라서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난관을 헤치고 나아가는 비상한 능력을 지닌 서사물의 영웅적 주인공들은 그때 사회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매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인물 유형이다.

영웅 신화에서 보여 주는 영웅의 시련은 타고난 것이며, 그것은 영웅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어 영웅성을 강조하는 성격을 가진다. 바리공주가 겪는 시련도 타고난 비운이며, 그 고난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영웅성을 찾을 수 있다.

바리데기는 어비 대왕을 아버지로 하고 길대 부인을 어머니로 하여 출생하였다.

대왕은 일곱째 딸로 태어난 바리공주를 낳자마자 옥함에 아기를 넣어 바다에 던져 버렸다.

바리공덕할아버지와 할머니 옥함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든 아기를 꺼내 길렀다.

한편, 어비 대왕 부부가 병에 걸렸는데

서천 서역국의 약수를 구해 먹어야 낫는다고 하였다.

그의 여섯 딸들에게 부탁해 보았으나 모두 그 곳에 가기를 거절하였다.

이때, 바리공주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부모를 만나게 되고, 부모의 목숨을 구하러 서천 서역국으로 약물을 얻기 위해 떠난다.

서천 서역국으로 가는 도중,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으나 모두 극복해 내고

마침내 그 곳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약수의 임자인 무장승의 청을 들어 주고

---

87) 바리데기'는 죽은 이의 넋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오구곳에서 불려지는 서사무가(敍事巫歌)이다.

그와 결혼한 뒤 약을 기지고 부모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부모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다.

바리공주가 죽은 부모에게 약물을 떨어뜨려 널자 소생하였다.

대왕은 바리공주의 공덕을 찬양하고 바리공주는 무속의 여신이 되었다

-<바리데기 바리데기 바리공주>중에서-

‘바리데기’는 가족과 두 번이나 이별하고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그러나 마침내 이를 극복하고 가족과 재회하여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구원해 낸다. 즉, 가족과의 ‘이별’이 한때 슬픔과 고난이었으나 오히려 그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주인공인 ‘바리공주’를 중심으로 볼 때 ‘탄생-버려짐-고난-목적달성-신이 됨’의 과정으로 전개되어 영웅 설화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바리공주는 바라지 않던 딸이라고 해서 매정하게 버려졌지만, 자라서 오히려 부모를 위해 자기 몸을 바쳐 효도하였다. 어려움 속에서도 넓은 마음과 용기로 참된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 (3) 동물을 통해서 바라본 인간 군상(群像)- 《이솝우화》

동물을 타자로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에는 언제나 서로 상반된 감정이 흐르고 있다.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간단한 명제 사이에도 ‘사회적’이나 ‘언어적’ 혹은 ‘도구를 사용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넣음으로써 그 명제의 명료함을 흐리고 동물과의 변별점을 찾으려는 인간이지만 어느 한 순간에는 자조적인 어조로 동물과 유사한 혹은 그보다 못한 인간을 인정하고 싶어 하고 더 나아가 동물을 있는 이상화하고 신성화하기까지 한다.

자신의 근원, 즉 동물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나온 동물이기에 스스로 ‘인간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설정해야 하는 짐을 지고 있는 인간은

동물과 인간의 경계에서 위태로운 길을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물은 인간 자신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가장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타자가 된다. 언제나 인간이 자신과의 변별점을 찾아야만 하는 타자인 동시에 인간 자신이 애써 이룬 정체성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타자인 것이다.<sup>88)</sup>

여우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지나다가 잠들어 있는 뱀을 보았다.

“이 뱀은 몸이 아주 길구나, 내 몸도 뱀처럼 길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높은 곳에도 쉽게 올라 갈 수 있을텐데.”

여우는 뱀의 긴 몸이 부러웠다. 그래서 여우는 뱀 옆에 나란히 누워서 자신의 몸을 길게 늘려 보기로 했다.

“어, 내 몸도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은데?”

신이 난 여우는 더욱 힘을 주면서 몸을 길게 늘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로 늘어 난 몸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좋아, 있는 힘을 다해 늘려 보는 거야.”

여우는 숨을 크게 쉬고, 몸을 최대한 길게 늘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다.

그런데 갑자기 “뚝”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만 여우의 허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여우와 뱀>: 이솝우화 중에서-

이솝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도 역시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냉혹한 정글의 법칙에 의해 지배당하는 존재였다. 이솝우화 속에는 사슴, 사자, 족제비, 공작새, 여우, 늑대, 개구리, 토끼, 황소, 양, 거북이, 비둘기, 까마귀, 당나귀, 뱀, 쇠똥구리, 독수리를 비롯한 수많은 동물들이 등장한다. 이것은 단지 우회적으로 풍자하거나 비유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삶이 동물

---

88) 신현철, 「<이솝우화>, 또 하나의 현실」, 『문학과 교육』 제13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176-177쪽

적인 본능으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다는 생각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인격화된 동물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이다. 약삭빠른 여우는 사기꾼, 다른 동물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사자는 권력자, 꾸미기를 좋아하는 공작새는 허영꾼, 겁이 많은 토끼는 비겁자, 일하기 싫어하는 당나귀는 게으름뱅이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인간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

#### (4)현명한 아내, 만카- 만카 이야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남존 여비의 유교적 가치관이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서 여성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자에게는 사회 활동을 위한 광범위한 지식 습득을 권장하고 여자에게는 삼종지도(三從之道)만을 강조하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유지에 필요한 규범을 익히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을 지니게 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가정에 안주하게 되며 자신만이 갖는 자기다움에 대한 정체성에 한계를 느끼고 소외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체코의 민담 ‘만카 이야기’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중략) 만카는 남편의 어리석은 판단이 부끄러웠습니다.

할 수 없이 만카는 농부에게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만카! 내 사건에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 했더니 벌써 잊었소?

어서 당장 친정으로 가 버려요. 변명은 듣지 않겠소. 이미 결정 했소.

하지만 당신에게 심하게 대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

내 집에서 가장 좋아 하는 것 하나만 가져가시오.”

(중략) 이튿날 아침, 눈을 뜬 시장은 바로 양치기의 오두막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향을 찾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자 만카가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당신,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를  
집에서 가지고 나와도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전 가장 좋아하는 당신을 데려 온 것 뿐 이에요. 그게 다예요”

“만카, 당신한테는 정말 못 당하겠구려. 내가졌소.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시장은 다시는 아내를 나무라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내에게 물어 보는 게 좋겠소. 저 아내가 매우 현명한 여인이라는 것 다  
들 알고 있죠?”

-<현명한 아내, 만카>중에서-

‘만카’는 억울함을 당한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것을 판결한 시장이 낸 문제를 맞추고 그의 아내가 된다. 시장의 아내가 된 만카는 남편인 시장의 판결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지혜롭게 벗어난다. ‘만카’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영웅이나 실력자가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 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인물이다.

#### (5) 지고 지순한 사랑을 한 남자-안데르센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은 아동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순수하게 어린이를 위해 작품을 창작한 최초의 작가이다. 지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전승 문학을 새롭게 각색하거나 내용을 보태어 새로운 형식의 동화를 창작하였다. 안데르센은 신분이나 지위, 상하 관계가 뚜렷한 봉건 사회인 덴마크에서 제화공의 아들로 태어난 가난한 소년이었다.

성공의 환상을 안고 14살 나이에 동전 몇 푼을 들고 집을 떠난 안데르센은 배우로서의 꿈도, 가수로서의 꿈도 접고 깊은 절망과 좌절의 기나긴 터널 속을 걸어야 했다. 그가 작가로서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견뎌야 했는가는 자전적인 동화인<미운 오리 새끼>에 잘 나타나 있다.<sup>89)</sup>

그는 젊은 날 사랑했던 여인 그보이트 때문에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냈다. 첫눈에 반해 버린 친구의 동생인 그보이트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그녀로부터는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겠다는 이별을 고하는 편지만을 받았던 것이다.

안데르센은 일흔 살로 세상을 떠났는데,

숨을 거둘 때 그의 목에는 자그만한 가죽 주머니가 걸려 있었다.

그 속에는 지난 날 사랑했던 그보이트가 준 짧은 이별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안데르센은 죽는 날까지 그 편지를 몸에 지닌 채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자 했다.

-<이별 편지 주머니>-

그보이트 또한 안데르센이 자신에게 바친 시를 평생 간직하였다. 안데르센이 그보이트에게 바친 시들은 지금도 덴마크 오덴세의 ‘안데르센 박물관’에 나란히 보관되어 있다. 자신이 쓴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가난하고 못생긴데다 소심했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에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바친 전형적인 순애보이다.

---

89) 윤후남, 「안데르센 동화-시적 산문과 풍자의 세계」, 『문학과 교육』, 제15호, 한국문학교육연구회, 2001, 234쪽

## 2)창작 동화

### (1)어린 왕자가 만난 별의 사람들-〈어린 왕자〉<sup>90)</sup>

〈어린 왕자〉는 1943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오랜 시간 하늘을 나는 비행사의 직업을 가졌던 생텍쥐페리는 인간의 고독을 깊이 드러내 주는 황량한 사막 위를 날아다니며 느낀 인간의 유대에 대한 절실한 욕구와 사랑의 회복을 이 동화에서 강조 하고 있다.

〈어린왕자〉 속에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인공인 어린 왕자를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 왕자는 순수하고 마음이 어린 소년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투명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알아 내려하는 집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작은 혹성 B-612호에서 여러 별을 여행한 끝에 지구에 도착한다. 장미꽃이 피어나고, 장미꽃은 어린 왕자를 좋아하지만, 허영심에 가득 차 있어 어린 왕자에게 오히려 쌀쌀 맞게 대하고, 상처를 받은 어린 왕자는 다른 별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첫째별에는 명령만 좋아 하는 임금님, 둘째별에는 거드름을 피우기만 좋아하는 사나이가, 셋째별에는 술고래가, 넷째별에는 셈하는 것 밖에 모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인 실업가가, 다섯째별에는 1분마다 가로등 불을 켜다,

---

90) 생텍쥐페리는 친구 레옹 베르트에게 쓴 헌사에서 “이 책을 어른들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며 〈어린 왕자〉는 어른들을 위해 쓴 동화라고 밝혔다.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가볍게 읽어버리는 것이 싫다는 화자의 말에서도 어른들의 위한 이 한편의 동화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중단되어 버린 생텍쥐페리의 이상 추구의 본질과 그가 구축한 정수가 담겼던 있는 진지하고도 중요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은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문학과 교육』 제17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

꿨다 하는 일을 되풀이 하는 인부가, 여섯째별에는 한곳에 틀어 박혀 탐험가의 말을 기록하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다.

“명령 없이 묻지 말기를 명령한다.”

“다시 묻기를 명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더 물어 보도록 명령하노라.”

“가지 말기를 명령하노라.”

“그럼 가기를 명령하노라.” -<어린왕자>첫째별에서-

자신의 별에 홀로 살면서 고독에서 벗어나기를 포기한 채 지배만을 하려는 인물을 나타내고 있다.

“너는 나를 존경하는 구나.”

“너는 이미 나를 존경하고 숭배한다며 박수를 쳤다.

그러니 너는 나를 숭배하는 것이다.” -둘째별에서-

타인에 의한 자기 확인을 추구하는 인물의 모습을 담고 있다.

“술을 마신단다.”

“잊어 버리려고 마신단다.”

“창피 한 걸 잊어 버리려고 마신단다.”

“술을 마시는 게 창피하지!” -세째별에서-

“별말이다. 나는 별을 세서,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란다.

아무도 발견하지 않았으니까 다 내거지.”

“뭘하긴 세고 또 세는 거지, 나는 착실한 사람이거든.” -네째별에서-

이들은 현실 도피나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이다. 또한 점등인이나 지리학자는 추상적 지식에만 집착하는 인물임을 나타낸다. 어린 왕자는 일곱째로 지구에 도착한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도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 보지 않는다.

(중략)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고.....“이런 식으로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어른들은 상상해 내지 못 할 것이다. 그들에겐 ”나는 십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소리친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일곱째별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어른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어린 왕자의 대비가 “어른들은 참 이상해.”라고 되풀이 하는 어린 왕자의 말에서 어린이와 어른이 구분되고 대립되는 인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구에서 만난 또 다른 인물인 여우는 ‘길들이는 법’을 어린 왕자에게 가르쳐 주고,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 있는 장미꽃을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어린 왕자가 양을 그려 달라고 부탁했던 조종사는 자신의 어린시절과 똑같은 어린 왕자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잃어 가던 순수를 다시 되찾게 된다. 조종사와 어린 왕자는 함께 우물을 찾아 헤매게 되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문학 교육에서 텍스트가 기본 단위의 역할로 학습의 중심에 있다면, 학습자가 중심에 있는 텍스트를 접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요소는 인물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작품 안에서 상호 관계를 맺으며 인간적 관심사나 시대적·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고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므로 작중 인물의 행동과 성격에 대한 대리체험<sup>91)</sup>을 하게 되는 학습자는 이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요소이다. 학습자는 동화 안에서 인물의 모형을 통하여 자아를 형성하고 대리 체험으로 인한 인식의 확대라는 훌륭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3. 물신화된 현실의 대응과 이상적 세계 구현

동화 문학에 있어서는 이상성과 공상성 내지는 동경성을 그 주된 특질로 삼는다. 이상(理想)은 꿈의 세계이며, 있어야 될 세계를 추구하는 인간의 영원한 향수의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작품 분석을 통해 물신화(物神化)된 현실의 대응과 이상적 세계의 구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과학과 물질문명에 대한 저항과 ‘우리 것’ 찾기

우리는 지금 풍부한 물질문명을 향유하며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다. 컴퓨터가 온 세상을 지배하다 시피하고 복제 인간이 탄생도 눈앞에 둔 시대이다. 과학의 눈부신 발달은 인간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또 다른 산물을 주었다.

---

91) 구인환외, 상계서, 85쪽

마음이 문제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노래 가사도 들었다.  
 그런데 요즘 내가 한 가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웃자람'이다.  
 마음도 몸처럼 차근차근 자라 주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아니, 현대인들의 불행은 경제 인플레이션과 같은 마음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도 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조개 껍데기하나에도 큰 기쁨을 누렸고,  
 단풍잎 하나에도 희열을 느꼈다. 풀벌레 울음소리 하나에도 메아리 쳐 오는  
 마음의 소유자였는데, 지금의 우리 마음은 어떤가?  
 값이 나간다는 금붙이에나 마음이 쏠려 있고, 쾌락 거리에나  
 기웃거리 보려고 하지 않는가?  
 도시만 공해로 그을려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마음도  
 각종 연기에 그을려 있다고 본다. -정채봉<마음>-

산업화로 인한 과학과 물질문명의 발달이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온 뒤안  
 길에는 비인간화가 만연되고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염원이 잘  
 나타난다.

과학 문명으로 인한 잃어버림은 비단 인간성뿐만 아니다. 1-1학기, 5단원  
 삶과 갈등의 [보충·심화]에 실려 있는 <바람을 파는 소년>의 동화 작가  
 이준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92)</sup>

파도처럼 밀려오는 과학과 문명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갖다 주면서 우  
 리들의 옛 것을 쓸어 가고 있다. 나는 우리의 말과 풍속과 환경과 우리의  
 혼이 담겨 있는 우리의 동화를 쓰고 싶어 한다. 그것을 옛 것을 모르고 새  
 것만 아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를 심어 주어 귀중한 우리의 문화, 풍속, 정  
 신을 과학 문명에 떠내려 보내지 않기 위해서이다.

92)1982년 초겨울, 그의 작품집 《밤에 온 눈사람》(창작과 비평사) 서문



나일론 부채가 잘 팔려 나갈 때에는 할아버지의 대나무 부채가 초라하고 불품이 없어 보였으나 할아버지 손님들의 칭찬을 듣고 난 후 남수는 전통과 정성이 담긴 대나무 부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이준연은 사라져 가는 ‘우리 것’에 대한 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쏟았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의 토속적인 것에 주로 눈을 돌려 소재를 사용하였다.<sup>93)</sup> 즉 민족의 전통 내지는 한국적 정서를 고찰 할 수 있는 토속적인 세계를 작품에 형상화함으로써 한국적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

## 2)이해 그리고 조화-어른과 아이의 더불어 살기

동화 작가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어른과 아이가 더불어 사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아동 문학가 폴발라드가 쓴 <이해의 선물>은 아이를 이해하려는 슬기로운 어른과 그러한 어른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순진한 아이가 연출하는, 더불어 사는 삶의 매력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어른의 억압과 방기(放棄)를 보여 주기보다는, 이해와 조화를 성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란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용인하는 것이고, 조화란 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아이와 어른은 너무 다르다. 아이는 어른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해와 상관없이 어른을 인정한다. 이에 반해 어른은 아이를 이해 할 수 있다.

아이를 이해한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의 선물>은 보여 주고 있다.

이만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싶을 만큼 내가 이것저것 골라 내놓자,  
위그든 씨는 나에게 몸을 구부리며 물었다.

---

93) 임한동, 「이준연 동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60쪽

“너, 이만큼 살 돈은 가져 왔니?”

“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는 주먹을 내밀어, 위그든씨의 손바닥에 반짝이는 은박지로 정성스럽게 싼 여섯 개의 버찌씨를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위그든씨는 잠시 자기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한동안 내 얼굴을 구석구석 바라보는 것이었다.

“모자라나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나서 대답했다.

“돈이 좀 남는 것 같아. 거슬러 주어야겠는데.....”

그는 구식 금고 쪽으로 걸어가더니, ‘철렁’ 소리가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돌아와서 몸을 굽혀, 앞으로 내민 손바닥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다.

-<이해의 선물>중에서-

할아버지 위그든씨는 모든 어른을 대표하고 있고, 어린 ‘나’는 모든 아이를 대표하고 있다. 아이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어른에 비해 대화가 서툴다. 따라서 아이와 대화하는 어른은 언제나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위그든씨가 버찌씨를 돈으로 착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어린 아이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말을 위그든씨의 말에 걸칠 수 있도록 위그든씨가 의도적으로 꾸며 낸 것이다. 아이와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 의도적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 그것이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어른의 마음인 것이다. 어른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아이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단지 아이를 이해하려고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어른이 아이를 포용하려는 순간, 아이와 어른은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이해와 조화는 더불어 사는 삶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3)天·地·人의 화합

단군신화의 네 번째 단락은 신단수(神檀樹)아래서 잉태를 비는 웅녀가 환웅과 혼인하여 한민족의 첫 임금, 단군 왕검을 낳은 이야기다. 다른 민족의 건국 신화에는 투쟁과 정복의 피 흔적이 남아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개국의 시조는 바로 천상세계의 환웅과 지상세계의 웅녀 사이의 혼인이라는 멋진 화합에서 탄생된다는 점이 다르다.

<단군신화>의 신단수(神檀樹)가 지상과 천상이 만나는 장소로 표현되고, 신시(神市)는 ‘천상과 지상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상징적 마을’이요, ‘하늘과 지상의<다리>’로 인식하는 면을 보아 ‘한국인의 사상적 원형’의 한자락으로 보인다.<sup>94)</sup> 곧 신시(神市)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천상과 지상의 존재들이 만나 이룬 곳으로서, 인간애호, 홍익인간의 정신 속에 天·地·人이 하나로 화합된 이상세계이다. 그러므로 한민족이 지향하는 이상향은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이 존중되고 하늘의 신과도 교류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작품이건 작가는 창작을 구상하면서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목적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작품의 세계관이다. 작품으로부터 추출되는 바람직한 세계관은 교육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매우 가치 있는 텍스트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문학의 교육적 기능이 문학의 가치를 학습에 이끌어 들여 개인의 자아 성숙을 돕고 인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관 교육은 교육적 고찰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화 작품이 많은 것만큼 작가도 많으며 매우 다양한 세계관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작가의식을 통해 세계관의 흐름과 그 시대상을 함께

---

94) 이어령, 『한국인의 신화』, 서문당, 1972, 15-16쪽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세계관은 학습자에게 간접 경험으로 받아들여져서 동화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 지도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VII. 결 론

산업 사회는 인류에게 물질 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와 더불어 심각한 인간소외, 물질주의적 가치관 등의 병폐를 야기 시켰다. 이른바 자연과학과 그 응용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산업사회의 인류는 두 번의 큰 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인간 자신의 본성에 대해 근원적으로 회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삶의 총체적 모습을 이해하고 인간의 가치를 근원적으로 깨우칠 수 있게 하는 데 문학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지고 있다. 특히 분열과 갈등의 세계를 화해와 조화를 통해 바라보는 동화는 현대 문명의 부정적 속성을 극복하고, 이데아를 인식하게 하는 통로이며 잃어 가는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전인 교육으로서 문학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동화란 작가가 아동과 동심을 그리는 성인을 독자 대상으로 쓴 아동 문학의 한 갈래로 예술성을 기저로 한 창작품이라는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동화는 전래동화·창작동화·외국 동화(번역 동화), 우화를 하위 범주로 갖는다. 전래동화는 옛날부터 전해 오는 이야기로 민족의 풍속이나 인정세태를 배우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체로 상상성·흥미성·비현실성을 띤다.

창작동화는 예술 의식이나 문학성을 강하게 드러내며 인간 보편의 진실을 표현한다. 외국 동화(번역 동화)는 외국의 아동 문학 작품을 우리 아동들에게 소개하고자 교육성·예술성·흥미성을 고려하여 번역한 것을 일컫는다.

우화는 동물이나 인간, 신 또는 사물(事物)을 주인공으로 하여 전개하는 짧은 이야기 형식의 하나로 보편적 지혜를 담고 있다.

동화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동화 작품을 통해, 문학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상호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동화 작품을 감상하고 즐기면서 체험의 확대, 정서의 순화, 통찰력, 상상력, 심미성, 창조력, 도덕성의 함양 및 인격 형성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런 교육적 효과를 밝혀내기 위해 본고에서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전래동화(우화, 신화, 전설, 민담)와 창작 동화(외국 동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문학교육에 있어 동화는 단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만 다루어지는 교재로 여겨졌지만, 변화된 교육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인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동화 문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할 작품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동화가 올바른 인간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학 교육적 의의를 규명해 보고자 했다.

II장에서는 동화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고, 발달단계의 측면에서 본 동화의 교육적 가치 및 기능과 전래 동화와 창작 동화의 교육적 특징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을 길러 주며 정서적으로 인격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III장에서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작품들을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함께 수록 양상과 활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갈래별 작품, 주제별 작품 그리고 학습내용의 분석에서 문학 제재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며, 장르의 명확한 규정 없이 동화 작품을 통한 창작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 장르의 체계화나 내용의 위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발견 할 수 있었고, 교과서에 실린 작품임에도 제대로 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화교육의 부재를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수록 작품의 가치 활용부분에서는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인성

교육을 강조 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 할 때 윤리적 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국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근면·성실, 우애, 효성, 우정등 개인적 윤리 기능에 비해, 통일 의식, 바른 정치, 민족 문화 계승 등의 국가적 측면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자신과 가정에서 그 시야를 넓혀 사회, 국가에로 그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개인적 측면이 우위를 차지함은 당연한 일이나 학년이 올라 갈수록 국가 의식의 밑거름이 되는 작품들의 수가 조금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지적, 언어적 측면에서 언어 능력 신장과 창의적 사고를 위한 방법들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창의적 사고 성향을 위해 자발적 동기, 집요성, 정직성, 호기심 유발 등의 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IV장에서는 동화 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규명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는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① 동화 작품을 통해 미적 정서를 함양하고 상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 작품의 정서적 내용은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작품이 대부분으로 특히 인간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작품이 많다. 이와 같이 동화 문학의 특질인 이상성, 공상성, 동경성이 나타나 있어 현실보다는 이상적이고 사실보다는 낭만적인 환상과 꿈을 내포하고 있는 정서를 맛볼 수 있겠다. 인간적인 사랑과 우정, 주변의 사물에 대한 애정 등의 정서적 감동을 통하여 더욱 폭넓은 인간성을 기를 수 있는 작품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어렵고 험난한 환경·모험·탐험을 즐길 수 있는 상상의 세계나 미지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 질투·공포의 극복·신체의 장애 적응 등 발달적 가치를 다루는 주제로서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

들은 정서적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동정심이나 이해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폐쇄된 현실과 세계 속에서도 자아와 우주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행복한 순간을 얻게 되는 것이 상상력의 힘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학생에게 꼭 필요한 극기심· 모험심을 기를 수 있고,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고 꿈꾸는 정서적 작품도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② 동화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형을 통하여 자아를 형성하고 대리 체험으로 인한 인식의 확대를 가져 올 수 있다. 동화 안에 있는 인물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 줌으로써 세상을 보는 총체적인 시야를 길러줌과 동시에 인물이나 시점에 관한 문학 지식적인 교육에도 효율적이다.

③ 동화 작품 속에는 물신화된 현실의 대응과 이상적 세계 구현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동화의 세계관은 다양한 체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를 간접 경험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가치관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동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학교 문학 교육에서도 다루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동화 작품이 갖는 문학자체로서의 가치가 중학생들이 수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으며, 한국인으로서 또는 현대인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꿈꾸고 실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동화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 교재가 좋은 교재인가, 또 학생의 심리적 발달 단계에 맞는가, 교육의 내용을 잘 표상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동화 교재를 연구 할 때, 즉 교재의 집필자나 교사가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작품의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발견했을 때 효율적인 학습지도가 구상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기 위

해서는 지대한 관심과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수용자들에게는 동화도 개인으로서의 작가가 자신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담아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내는 새로운 가치관이 담겨 있는 문학이라는 인식을 깊이 있게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용자들이 모든 작품을 중심의 모습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문학교육의 보편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7차 교육과정의 하나인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서 살펴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동화 교육 연계 모습과 효과 그리고 구체적 대안은 후속 과제로 남겨 둔다.

## ABSTRACT

A Fairy tale research that is collected in a middle school language text book  
of Korean

-Laying stress on transmitted Fairy tale and creative Fairy tale-

Kim, Jung Sun

Major in Korean Languag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s tendencious to present the alternative to overcome this circumstance to literature education through fairy tale to middle school students specially child, teenager who is suffering misery in environment that is various pernicious evil enemy of 21th century modern society.

A Fairy tale overcomes negatory intensive training of modern civilization, and there is large meaning to achieve ultimate purpose of literature education as education for whole personality that restore human nature that is way that do to recognize idea, and lose. Nevertheless, Fairy tale has been considered by literature teaching material that is handled in only kindergarten or primary school in literature education. But, Fairy tale work was collected richly to area 'Replenishment-deepening' or 'To widen ideas', last 'Swimteo' of denouement etc, in diversification of composition system in middle school language text book of Korean of the seventh course of study.

This has been displaying phase of recently risen juvenile literature, and is speaking that Fairy tale literature is doing enough share to our society and literary grand member now.

Students do enlargement of experience, refinement of emotion, insight, vision, aesthetics, creative power, fostering of moral sense and formation of character appreciating and enjoy Fairy tale work. Could know through analysis that transmitted Fairy tale (parable, mythology, legend, folk tale) and creative Fairy tale that publish in a middle school language text book can achieve this education purpose but do enough part. But, teaching situation or actor is dealing indifferently from consumer's situation or investigator's situation, everybody.

This can see that is that we receive literature and is 'Cutting' and result tamed to 'Divide'. Because of this sight, is not achieved researcher properly to that is work that is collected in a text book that is data and a tool to realize soul and contents of course of study.

Need universalism of literature education to overcome this sight. Universalism of literature education is mind which must have variety and sense of balance by hour angle which open about literary works as object of education. It is belief or intent which keep neutrality about opinion or attitude the esthetics enemy the confrontation enemy. Speak poise that can expropriate the everything positively all round.

Therefore, it is that is bearing which confidence called literature which Fairy tale also has excellent value and meaning is necessary first of all. Students desire that can accommodate Fairy tale literature in universalism of these literature education after it is original, and Fairy tale that is collected in a middle school language text book of Korean to make to source of experience that knows literary aesthetic value, and gets instruction to help in attitude and direction of life, and widens width of realization about society and world as language art that is purpose of literature education could know that play an important part.

Also, desire that can have opportunity that can know that to foster literary sensitiv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is situated in state of transition period before high school student(17 ~ 19 years old), time that do literature education regularly, becomes Fairy tale literature can do important action.

## 참 고 문 헌

### 1. 교과서· 교육 과정 해설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교육부 고시 1997-15호』

『국어 1학년 1학기』

『국어 1학년 2학기』

『국어 2학년 1학기』

『국어 2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 국어 1학년 1학기』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 국어 1학년 2학기』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 국어 2학년 1학기』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 국어 2학년 2학기』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 국어 3학년 1학기』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 국어 3학년 2학기』

## 2. 단행본

- 구인환외4인, 『문학과 교육』, 삼지원, 1996
- 김동학, 『한국 구비 문학의 이해』, 월인, 2000
- 김서정, 『어린이 문학 만세』, 푸른 책들, 2003
- 김요섭역자(윌리엄. H.스미스), 『아동문학론』, 교학연구사, 2000
- 김자연, 『아동 문학 이해와 창작의 실제』, 청동거울, 2003
- “ ”, 『한국 동화 문학 연구』, 서문당, 2000
- 김정란, 한용택 공저, 『동화속의 문화, 문화 속의 동화』,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
- 대한교직과 교재편찬위원회, 『아동 교육 심리학』, 교육출판사, 1988
- 박민수, 『아동문학의 시학』, 양서원, 1993
- 박상재, 『동화 창작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2
- “ ”, 『한국 창작 동화의 환상성 연구』, 집문당, 1998
- 박인식, 이미애, 『TV 동화 행복한 세상』, 샘터, 2002
- 손인수, 『한국인의 가치관』, 문음사, 1988
- 유소영, 『아동 문학 어떻게 이용할까』,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1
- 유창근, 『현대 아동 문학의 이해』, 동문사, 1997
- 원종찬, 『아동 문학과 비평 정신』, 창작과 비평사, 2001
- 이상섭, 『문학 비평 용어 사전』, 민음사, 2001
- 이상재, 『아동 문학의 이론』, 형설출판사, 1994
- 이성훈, 『동화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 이어령, 『한국인의 설화』, 서문당, 1972
- 이옥형·이종숙·임선빈, 『교육 심리학』, 집문당, 2003

- 이원수, 『아동 문학 입문』, 소년 한길, 2002
- 이준연, 『밤에 온 눈사람』, 창작과 비평사, 1982
- 임원제, 『아동 문학 교육론』, 신원문화사, 2000
- 이철환, 『연탄길 1,2,3』, 삼진 기획, 2002
- 장혜순, 『아동문학론』, 창지사, 1997
- 최경숙, 『아동 심리학』, 민음사, 1989
- 최운식·김기창 공저, 『전래 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3
- 최치훈, 『어린이를 위한 문학』, 비룡소, 2001

## 2. 논문 및 논저

- 구인환, 「현대 사회의 위기 상황과 문학의 지평」, 『21세기 인문과학의 과제』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6,
- 강유정, 「아동 문학의 교육적 기능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 고영화, 「제7차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의 문학 작품의 수용 및 활용 양상」,  
『문학과 교육』, 제16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 김경연, 「청소년의 이해」, 『문학과 교육』, 제17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 김윤중, 「동화 속에 나타난 가부장적 요소의 전복: 바바라 위커의 동화 다시 쓰  
기」,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김효신, 「동화 교육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박미경, 「아동 문학의 교육적 기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 손춘익, 「환상 공화국-동화 정신을 위하여」,  
『한국 문학』 7·8월호 합병호, 1994
- 신현철, 「<이솝 우화>, 또 하나의 현실」, 『문학과 교육』 제13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 윤후남, 「안테르센 동화-시적 산문과 풍자의 세계」, 『문학과 교육』 제1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 이선향, 「국내 인터넷 동화 사이트에 활용되고 있는 동화 내용 및 동화 사이트  
의 분석」,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이은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문학과 교육』 제17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 이영림, 「아동 문학과 어린이의 성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이재분외3, 「초·중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 수준 분석 연구(1)」,  
한국교육개발원, 2000
- 임한동, 「이준연 동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정선혜, 「한국 아동 문학의 정체성과 전망」, 『아동 문학의 특성과 전망』  
성신여대 인문과학 연구소, 2003
- 정진, 「한국 전래 동화의 활용 및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어린이 문학 교  
육 연구』 어린이 문학교육학회, 2001
- 정현선, 「동화와 애니메이션 ‘보기(viewing)’를 중심으로 한 멀티 리터러시의 국  
어 교육적 고찰」, 『국어 교육』, 제114호, 어린이문학 교육학회, 2001
- 진교훈,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윤리학의 과제」, 『21세기 인문학의 과제』  
카톨릭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6
- 최경희, 「문학 교재의 체계화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 초등 국어 교  
육』 제11집, 한국초등교육학회, 1995
- “ ”, 「동화의교육적 응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3
- 최금자, 「동화를 통한 인성 교육 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한상수, 「한국 아동 문학의 교육적 기능 연구」, 단국대대학원 박사, 1988